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교육 방안 연구

-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을 중심으로



2010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최 지 성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교육 방안 연구

-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최 지 성

최지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25일



주 심 언어학박사 조 미 정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가. 다문화교육관련 선행연구	5
나. 국어교과 적용 다문화교육관련 선행연구	6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II. 다문화적 국어교육의 필요성	10
1. 다문화사회의 현황 분석	10
2. 현행 다문화적 국어교육의 문제점	13
III.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18
1. 설화와 쓰기의 관련성	18
2.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다문화교육적 의의	25
IV.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와 내용	31
1.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	31
2.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방향	33
3.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내용	36
가. 계획하기	42
나. 내용 창안하기	48

다. 내용 조직하기	54
라. 표현하기	60
마. 고쳐 쓰기	62
V.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실제	64
1. 수업 지도 방안	64
2. 수업 지도의 실제	66
가. <중2-2. 5. 창작의 즐거움> 수업지도의 실제	67
VI. 결 론	74
참고문헌	77
부록	81



<표 목차>

<표-1>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 비교분석	37
<표-2> 모티프 배열의 예	46
<표-3> 내용창안하기 질문에 따른 화근 양상	50
<표-4> 내용요소 선택의 예	52
<표-5>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 지도방안	65
<표-6> 교수·학습 운영 방안	68
<표-7> 본시 학습 지도안	69

<그림 목차>

<그림-1> 교학사 중학교 국어 1-1 2. 따뜻한 사람, 향기로운 글 (2) 자루 니의 사랑 편지	15
<그림-2> 천재교육 중학교 생활국어 1-1 2. 읽기의 달인 - 깊이 생각하기	16
<그림-3>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의 절차	35

A STUDY FOR WAY OF MULTICULTURAL WRITING EDUCATION USING CINDERELLA TYPE
- A FOCUS ON THE KOREA, CHINA, JAPAN, VIETNAM

Ji Seong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oday, in the form of various cultures throughout the world appear. And in a society open their minds to different cultures living was a natural. In these circumstances Korea has so far maintained a unique culture, not able to accept different cultures has taken an exclusive stance. However, because of rapidly expanding multicultural society, must strive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This shift in perception is important for the role of education. This study has recognized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has the purpose of the plan to establish multicultural education.

As concrete measur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writing instruction to prepare the plan. Writing is a communicative action, meaning construction activity, and the decision is an act. Because writing is done through interaction, language skills, gives a great help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types of multicultural Cinderella type as the writing of the sanctions were used. Cinderella types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and also has specificity. So the ability to respect diversity can be kept, and writing skills can grow. Specifically, the problem solving process,

recognize the writing and writing-by-step strategy is proposed. This study is suggested strategy by Plan step, Create content stage, information to organization steps, to represent stages, Rewrite step.

At each step of this study the specific problem-solving through the Cinderella type appearance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process can be applied a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is study utilizes a Cinderella type of writing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amines ways. And it has made the specific Pl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특징으로 특정 지역과 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문화는 그 지역이나 사회의 특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는 한국의 특성을 나타내고 성격을 규정지으며 한국인이 공유하는 무형의 실체로서 존재해왔다.

오늘날 산업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서로 달랐던 사회가 세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 한국 또한 그러한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며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서 한민족의 틀 속에서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단일민족과 단일국가를 강조해 왔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한 핏줄, 한 민족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급격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결

혼 이주자 및 새터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0년 49,507명에서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 2010년 현재 1,180,59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 그리고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자녀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의 교육문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대답은 사회적으로는 이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이며, 교육 영역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교육대상의 다문화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오경석 외, 2007:200).

행정안전부(2009)에 따르면 2009년 국제결혼 이민자는 125,673명, 혼인 귀화자 수는 41,417명,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107,68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전년도 2008년 대비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6년 7,998명에서 2009년 총 24,745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서도 교육대상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은 생활 부적응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겪는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적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정 지역과 사회를 바탕으로 한번 형성된 문화적 특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와 틀리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식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모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통합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어교육 또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언어와 문화를 다루기에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교육의 제재로 적합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자녀의 쓰기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쓰기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쓰기는 또한 의미구성과정이며 의사결정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쓰기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언어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쓰기는 다른 언어활동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쓰기능력의 향상은 말하기, 듣기, 읽기능력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민담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구비문학 양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존재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각기 독자성 또한 지니고 있다. 민담은 제재의 특성상 오랜 시간의 전승과정을 거쳐 형성되면서 필연적으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내재하게 되어 민족의 특수성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단지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민담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보편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지니는 민담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쓰기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탐구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쓰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 연구

최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요성을 언급하는 논문이다.

권순희(2008)의 연구는 외국의 다문화 교육을 분석하고 현행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뿐 아니라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갑성(2006)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태를 다문화가정의 언어문제, 자녀들의 학교 생활문제, 다문화가정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의·강현석(2009)의 연구는 다문화 교육 연구에서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Gay(1979)와 Banks(1993)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자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개념화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분석의 틀을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양영자(2008)의 연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로서 다문화 교육의 현장과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하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함께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 다문화 교육 정립을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개

념 정립을 논의하고 다문화교육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국어교과 적용 다문화교육관련 선행연구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을 개별교과에 적용시킨 연구로서 특히 국어교과에 다문화교육을 적용시킨 논문들이 있다.

박영민·최숙기(2006)의 연구는 다문화 시대 국어교과서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국어교육의 역할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적 문식성을 고려한 제재 선정 및 학습활동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단원 구성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현주(2008)의 연구는 다문화 교육 관점에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범주를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 모형과 실제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제시한 모든 모형에 대한 실재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원진숙(2007)의 연구는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언어교육을 참고로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회통합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지현(2008)의 연구는 한국 다문화 환경의 특수성과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있어 문학교육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Banks(2008)가 제시한 개념 중

심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개념 중심 수업 방안의 실재를 제시하고 있다.

최숙기(2007)의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국어교과서의 구성 원리와 교재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문화 미국 교과서를 분석·제시하면서 다문화적 문식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고 다문화주의가 반영된 제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류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논의에 대한 구체적 실재는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밖에 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류현주(2008)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특별한 언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발음평가검사(APAC) 등의 검사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조음발달이 정상발달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하나의 검사도구만 활용하였으며 모국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서혁(2007)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인혜(2008)의 연구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별로 동향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대처 방안들을 고찰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머지않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일반 가정 자녀들이 함께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어과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언어기능’과 ‘문화’이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가장 중요한 도구중 하나이므로 언어기능교육과 문화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문화교육에 있어 언어와 문화 교육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 있어 구체적인 다문화 제재를 통해 교육 방안을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화, 그 중에서도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은 통합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아닌 일반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일반학생을 함께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므로 II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주를 유형화해 보고,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검토해 본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교

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현행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쓰기교육에 주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설화의 장르적 특성과 쓰기의 언어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화와 쓰기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다문화적 쓰기교육에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검토한 후에,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다. 쓰기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종합하여 살펴보고, 연구방향을 가늠한다. 그리고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V장에서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모형을 이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2-2. 5. 창작의 즐거움> 단원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수업 지도의 실재를 설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Ⅱ.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1. 다문화사회의 현황 분석

단일민족을 표방하던 한국사회가 최근 급격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외국인 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0년 현재 100만여 명, 2020년에는 국내인구의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이제는 소수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단일민족, 순혈주의에 익숙했던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다민족화, 다문화화는 여러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그 중에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것은 국어과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에 취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어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문제는 교육 문제는 앞으로 취학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취학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멀지 않은 시기에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통합적 차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서혁(2007:3)은 다문화가정 현황을 제시하면

서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¹⁾ 이러한 분류에 대해 양영자(2008:59-60)에서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외국의 다문화교육을 그대로 끌어와 ‘인종과 종족’의 측면에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자, 새터민 외에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입국재외동포를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입국한 가정이나 재외동포 가정과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 입국재외동포가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취학중인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를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들이 현재 취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대

1) 서혁(2007:3)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한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새터민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및 그 자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1997년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헌법 제 31조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습의 부진과 일반가정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학교의 부적응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 가정 자녀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을 연구한 오성배(2007:11)에 따르면, 이들은 이주 형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 그리고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채영희(2008:182)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내용 및 방향을 의미한다. 1970년대 동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이론이 등장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적 창의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주의이론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범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가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사고의 틀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교육을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2.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다루어져 교육과정상에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2006년도부터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독려했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문화교육’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1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기점으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국제결혼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 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오경석 외, 2007:208).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지원,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 협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총론 부분에서는 ‘다문화교육’을 크게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통일 교육과 함께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루었다. ‘재량활동’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지도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 편성·운영 지침 부분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다문화교육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구체적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여전히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나 교육내용의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흡한 것이다.²⁾ 양영자(2008:113)에서도 교육대상 선정과 확보에는 관심이 있으나 교육내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국제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의 모습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나 지역단체 수준에서 필요에 의해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일반 가정 자녀들이 함께 학습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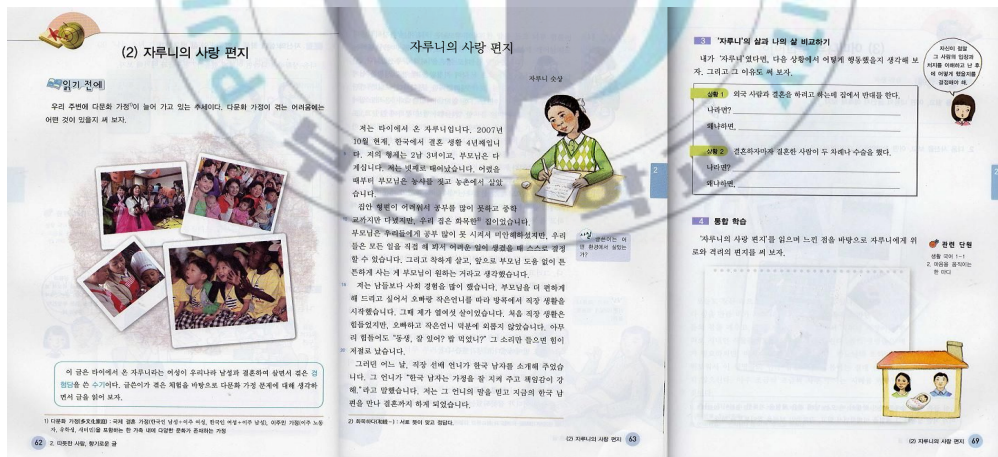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제결혼 이주민, 새터민, 화교, 난민 모두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주의적 폐쇄성은 이들의 사회적 동화를 방해한다. 둘째, 이주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인권침해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수준에서 해소되고, 이들의 건강한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소수자 대상의 한국사회 적응교육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이들을 상대적으로 낙인시키게 되며 이들의 낮은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으로 귀결하게 만든다. 넷째, 화교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정체성과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 분포비율상 가장 높은 국

2) 채영희(2008:188)에 의하면 2007년 2월 28일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다문화교육'을 35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사회가 다문화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민족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의 과제를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초등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결혼 자녀들이 점차로 중등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융합적 다문화교육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이재분 외, 2008: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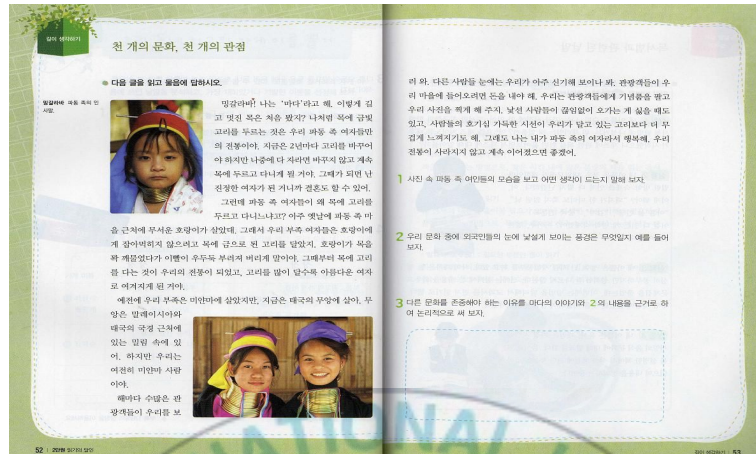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적용된 것은 2010년 중학교 1학년부터이다. 앞서 말했듯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도입하였으므로 국어교과서에도 다문화교육을 고려한 단원 혹은 제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서 그런 시도가 엿보인다. 다음 그림은 2010년 출판된 중학교 국어/생활국어 1-1 교과서 중 다문화 교육적 관점이 나타난 부분³⁾을 발췌한 것이다.

<그림-1> 교학사 중학교 국어 1-1 2. 따뜻한 사람, 향기로운 글
(2) 자루니의 사랑 편지



3) 김형철 외(2010:62-69)와 노미숙 외(2010:52-53)에서 다문화교육을 다루고 있다. 다문화 제재를 ‘읽기’ 활동에 적용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림-2> 천재교육 중학교 생활국어 1-1 2. 읽기의 달인 - 깊이 생각하기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달시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적 쓰기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언어기능 중에서 쓰기는 읽기와 함께 문어적 능력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문식력(literacy)의 개념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문식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⁴⁾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

4) “인지 사회적 이론에 근거하여 읽기나 쓰기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경화, 1996:99)
 “문식력은 읽기와 쓰기는 글이라는 표상체계를 사용하여 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이차숙, 1995:137)

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읽기 쓰기와 같은 문식적 언어 능력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쓰기는 표현하기 활동으로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는 쓰기 능력의 경우 일반학생들에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⁵⁾⁶⁾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상에는 이를 배려한 쓰기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적절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문식력의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기에 대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 5) 이계풍(2009:55)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문을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비교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①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건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② 사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여 통일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 ③ 문단 나누기를 어려워한다.
 - ④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서투르다.
 - ⑤ 도입부분이 상투적이고 대화체 등의 활용이 부족하다.
- 6) 노정은(2010:54)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 자녀와 비교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① 쓸 내용을 다양하게 마련하지 못한다.
 - ②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문제나 조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④ 깊이 있는 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너무 간단하게 쓴다.
 - ⑤ 자신이 참고한 글의 경우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많다.
 - ⑥ 알고 있는 낱말의 수가 한정적이다.
 - ⑦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비문의 사용이 많다.

Ⅲ.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1. 쓰기와 설화의 관련성 검토

다문화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문화, 종족 공동체에 대한 유대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보다 넓은 시민문화와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Banks, 김용신·김형기 역, 2009:50). 다문화교육은 해당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의 각 영역에서는 여러 방면의 연구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국어교육 또한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전 영역에 걸쳐 다문화교육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위해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각기 고유의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 ‘쓰기’ 영역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설화 중에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설화와 쓰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설화와 쓰기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설화의 특성을 활용하여 쓰기교육에 적용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다.

강서원(2005)에서는 쓰기교육을 위해 적합한 제재로서 설화의 특성을 언급하며 설화를 통한 쓰기 지도방안을 살펴본다. 설화의 단순하고 개방적인 특징은 창의적인 쓰기교육에 적합하다면서 설화의 개념과 특징, 설화의 표현양식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글쓰기교육을 제시한다. 설화 자체의 특징과 설화의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글쓰기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김창란(2005)에서는 설화교육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한다. 설화라는 제재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와 쓰기영역의 분석과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글쓰기 능력의 향상은 발견되었으나 글쓰기 동기유발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손연정(2004)에서는 단순한 구조와 접근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화가 창작교육에 유용한 제재로서 가치를 지닌다며 과정중심 전략을 활용한 창작교육에 대해 연구한다. 다양한 관점의 과정중심전략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 뒤, 계획, 진단, 지도, 평가, 내면화단계의 틀에 맞춰 창작지도 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한다. 실험결과 실험집단의 창의력과 상상력, 창작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보다 다양한 구성모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장주희(2004)에서는 민족적이고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설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글쓰기 지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설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설화 활용 글쓰기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설화를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그 중 설화를 통한 협동작문 지도방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설화

작품을 바탕으로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설화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방안을 마련해 본다. 앞서 정의한 바대로 다문화교육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신데렐라 유형의 다문화교육적 가치가 부각된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민담으로서 구비문학의 장르적 속성을 통해 다문화성을 드러낸다.

서대석(1994:1)에 의하면, 구비문학은 전승 집단이 향유하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집단의 문화나 가치관이 반영되게 마련이고 언어 공동체의 전승 기반 위에서 존재하는 문학이기에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그러면서도 기록 문학에 비하여 개인의 특수한 정서보다도 집단의 보편적 의식을 담고 있기에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띠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구비 문학은 세계적인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기에 두 나라 문학을 연구하는 비교 문학적 연구의 시각이 기록문학보다도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비문학으로서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비교문학적 연구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다문화교육과 관련된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는 구비문학의 한 양상으로서 집단의 문화와 언어기반 위에서 형성되었고, 인류 공통의 보편성과 함께 각 집단의 특수성 또한 가지게 된다. 이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인식함으

로써 문화 다원주의적 시각을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능력의 신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와 쓰기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쓰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쓰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쓰기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하지만 문자를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글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글(문자)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글쓰기는 말과 함과 의사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 등을 목적이나 독자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쓰기는 의미 구성 행위이다. 일련의 문제 상황을 접하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미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떠올리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을 바꾸기도 하고 정교화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 행위가 바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의미를 구성해가는 행위이다.

셋째, 쓰기는 독자와의 상호작용 행위이다. 글을 쓸 때 필자는 독자가 자기가 쓴 것을 나름대로 해석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점 때문에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독자의 관점이나 지식, 배경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독자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글을 좋은 글이 되기 어렵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독자를 고려함으로써 애초에 쓰고자 했던 것을 수정, 조정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쓰기란 독자와의 끊임없는 만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넷째, 쓰기는 의사결정 행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작문의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예상독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떻게 전달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상 독자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방식과 표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쓴 글의 내용과 조직 방식과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고치는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작문의 과정은 의사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작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섯째, 쓰기는 다른 언어 기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듣기를 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엄격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서로 얽히고 설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글쓰기 활동은 듣기나 말하기, 읽기 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신헌재 외, 2008:327-329).

살펴본 바와 같이 쓰기는 언어능력 중에서도 표현능력에 속하며, 상호간의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쓰기의 과정은 독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논리력과 창의력,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쓰기’능력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기능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을 위한 쓰기교육에 있어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가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설화장르에 속하며, 설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화는 구전된다.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唱曲)과 관계없이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가능하게 된다. 설화의 구전은 구절구절을 완전히 기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서 이루어진다.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도록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설화는 구전된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보존과 전달 상태가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한 유형의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된다.

둘째, 설화는 산문으로 되어 있다. 설화는 보통의 말로서 구연되며, 규칙적인 율격은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설화의 어느 부분에 율문(律文)인 노래가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이다.

셋째, 설화는 구연(口演)기회에 제한이 없다. 설화는 언제·어디서나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분위기만 이루어지면 구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갈래 중 일정한 기회에 구연하는 노동요·무가·가면극 등과는 다르다.

넷째, 설화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의 대면 관계에서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된다. 민요는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 혼자 부르기도 하지만 설화는 혼자 구연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화는 화자와 청자의 대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구연되는 것이다.

다섯째, 설화의 화자는 화자로서의 자격 제한이 없고, 일정한 수련을 요하지도 않는다. 설화의 화자는 판소리·무가·가면극처럼 일정한 수련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읊길 수 있는 정도의 기억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설화는 수수께끼·속담 등과 함께 널리 향유되는 구비문학의 장르인 것이다.

여섯째, 설화는 구비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문자로 기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다. 이는 설화가 양반이나 지식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자로 기재되어도 변질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문헌에 기록 정착된 설화가 많

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쓰기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우선 설화는 구전되는 문학으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글쓰기 과정에서 작가가 끊임없이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써나가듯이 설화의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구연한다. 그러므로 글쓰기가 독자와의 상호작용 행위라면 설화 역시 청자와의 상호작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사결정 능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설화는 화자든 청자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향유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다. 한번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현하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구성행위로서 적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쓰기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접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의미구성행위이기 때문에 설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의미구성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설화는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기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설화는 구전되어 전해지다 한문의 유입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구전문학의 성격과 기록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화의 표현형식을 통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의 언어 능력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설화와 글쓰기는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의 특징들이 쓰기의 특징들과 관련하여 국어사용 능력을 비롯한 표현, 이해 능력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설화를 활용한 쓰기교육을 통해 국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설화와 쓰기가 가지는 특징들에서 기인한다.

구비문학의 한 장르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설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제재라고 할 수 있으며,

설화의 특징들은 쓰기교육과의 관련성을 통해 효율적인 국어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며, 다문화교육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설화 중에서 특히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쓰기교육에 효과적인 제재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설화이므로 다문화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2.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다문화교육적 의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한 가족 내에서 혈연이 다른 계모와 의붓딸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서 여자 인생의 한 단면을 드러내려는 구비서사문학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여성 삶의 세계를 되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이야기가 지닌 흥미를 맛보게 하여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생모의 죽음, 그로 인한 계모와의 갈등, 원조자에 의한 행복한 인생 전환, 친모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그리고 악행과 그 징벌 등이 서로 얹혀 펼쳐지는 민담의 세계는 여성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과정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인생 굴곡의 한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상이한 혈연 구성원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삶에 대한 용기와 끈질긴 인고의 마음가짐을 터득케 한다. 여기에 스며있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는 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지닌 오락적 요소는 우리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켜 준다. 여러 번의 역경을 거쳐 마침내 귀인과 환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친밀하게 짜인 스토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인생 성공을 경험하는 듯한 흥분을 안겨준다. 이러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실용성과 오락성은 오늘날까지 그 전승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

다.

김정란(2004:14)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10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유형이 전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⁷⁾

의붓딸이 계모 학대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귀인과 행복한 결혼을 하는 기본적 서사양식을 가진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유럽과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미 등에도 전승되는 범세계적인 민담이다. 우리나라의 ‘콩쥐팍쥐’ 또한 세계적 민담 유형 ‘신데렐라’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고 있어 그 세계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오랜 구전 역사를 지니면서 현재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김기창(1987:143-151)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살펴보면, 중국 『酉陽雜俎』의 ‘섭한(葉限)의 이야기’ 및 ‘이쁜이와 곰보’, 베트남의 ‘심술궂은 계모’, 포르투갈의 ‘왕후가 된 부엌쟁이’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샹드리앙’, 일본의 ‘米福栗福’ 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면서도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나라의 ‘콩쥐팍쥐’ 또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7) 김현선·최자운(2004:261)에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보편적 분포와 전승에 관해서 밝힌 몇 가지 해명 가설을 언급하면, 첫째,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장된 결과라는 것, 둘째,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야기가 동일한 형태를 취한 결과라는 것, 셋째, 특정 시기의 산물인 신화적 사고의 파편이 여러 지역에 잔존하면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각 가설들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분포와 전승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저마다의 타당성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결론을 찾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에는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마다의 독자성을 가지고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각기 다른 문화의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인 다양성, 공동체 의식, 정체성,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야말로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한 창의성 증진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보편성과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는 독자성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보편성과 독자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콩쥐팍쥐’와 일반적인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① 옛날에 콩쥐와 팍쥐가 살다. 팍쥐는 계모소생이고, 콩쥐는 진처 딸이다.
- ② 계모는 콩쥐에게 나무호미를 쥐서 달밭을 매게 하고, 팍쥐에게는 쇠호미를 쥐서 모새밭을 매게 하다. 팍쥐가 먼저 매고 돌아오다.
- ③ 콩쥐가 호미가 부러져서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검은 황소가 내려와 밭을 갈아 주다.
- ④ 계모가 외갓집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좁쌀과 벼 석 삼 쪼기, 밀 빠진 독에 물 긴기, 밀 빠진 술에 밥 짓기를 시키다.
- ⑤ 콩쥐가 울고 있는데 두꺼비, 구렁이가 차례대로 나타나 술 밭, 독 밭에 얹드리다. 새떼가 와서 벼를 쪼고, 까치 떼가 날아와서 좁쌀을 쪼다. 황소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잔치에 갈 옷과 신과 가마와 하인 있는 곳을 가르쳐주다.

- ⑥ 콩쥐는 가마를 타고 잔치에 가다.
- ⑦ 잔치에 가다가 신발 한쪽을 잃다. 선비가 신을 줍다. 잔치에 온 콩쥐를 발견하고 팔쥐는 계모에게 말하나 계모는 부정하다. 선비가 신이 맞는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신주인을 찾다.
- ⑧ 팔쥐에게는 신이 작고 콩쥐가 맞아 콩쥐는 선비와 결혼하다.
- ⑨ 목욕하러 가지 말라는 선비 말을 어기고 팔쥐에게 꼬여 연못에서 익사 당하다. 팔쥐가 콩쥐 행세를 하다. 선비가 콩쥐와 외모 다름을 추궁하나 팔쥐는 돌려내다.
- ⑩ 선비가 연못에 핀 꽃을 꺾어 문 위에 꽂아 두다. 팔쥐는 들락날락 할 때마다 쥐어뜯겨 아궁이에 처넣다.
- ⑪ 이웃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와서 아궁이에 구르고 있는 빨간 구슬을 가지고 가다. 구슬이 처녀로 변해 할머니에게 선비를 불러 아침을 먹이도록 시키다.
- ⑫ 밥상에 놓인 짹짹 젓가락에 곤란해 하는 선비에게 처녀가 “색시 바뀐 것은 모르고 젓가락 바뀐 것은 아나 보다”고 하다. 처녀를 보니 콩쥐이다.
- ⑬ 팔쥐를 죽여 고기를 만들어 계모에게 먹이다. 눈이 어두운 계모는 자기 딸이 고기를 먹여준다고 생각한다. 팔쥐의 발목과 머리를 계모 치마폭에 담아주자 계모는 괴로워하다가 죽다.
- ⑭ 콩쥐는 선비와 잘 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460-466).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수백 종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의 전형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학대받는 여주인공: 여주인공이 그녀의 계모와 이복자매들에게 학대를 받고 난로가 또는 잿더미에서 누더기를 걸치고서 생활한다.
- ② 마법의 도움: 그녀가 집에서 하녀처럼 생활하는 동안 그녀의 죽은 어머니 혹은 엄마 묘소에 있는 나무에게 조언을 얻고 음식과 그 밖의 것들을 공급받는다.
- ③ 왕자를 만남: 그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몇 차례 왕자와 춤을 추었는데, 왕자는 그녀를 붙잡아두려 하나 헛수고였다. 또는 교회에서 그녀가 왕자의 눈에

떠났다.

④ 정체의 확인: 그녀는 신발 테스트를 통해서 정체가 드러난다.

⑤ 왕자와의 결혼(오윤선, 2006:268)

이상에서 살펴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콩쥐팍쥐’ 이야기는 결혼을 전후로 두 개의 군으로 나뉜다.

A 결혼 가정의 발단-계모의 학대-협조자의 출현(亡母)-친척집 잔치-협조자의 출현(동물)-꽃신 선사-신발 한 짝 분실-지체 높은 남자 꽃신 임자 탐색-결혼

B 거짓 유인과 살해-악한이 대리행세-원혼의 환생과 변신-악행의 탄로-행복한 상봉-악인의 징벌(주종연, 1993:23)

오윤선(2006:269)에 의하면 일반적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학대받는 여주인공이 왕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콩쥐팍쥐’와 비교하면 A군까지의 이야기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콩쥐팍쥐’에서는 거기에 더해 결혼 이후의 이야기 B군이 추가되어 있다. 콩쥐가 귀인과 결혼을 한 후에도 악한과 벌이는 갈등양상이 구연된다. 그래서 콩쥐에게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적용할 수 없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여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꾸는 것을 가리키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녀를 구원해 줄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반면 ‘콩쥐팍쥐’에서는 귀인이 콩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팍쥐는 콩쥐를 속여서 그녀를 죽이고 자신이 콩쥐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이에 콩쥐는 죽은 뒤 꽃으로 환생해서 팍쥐에게 복수한다. 결혼 후 고난을 극복해낸 것은 콩쥐 남편의 힘이 아닌 그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의 양상에서 ‘콩쥐팍쥐’만의 특징은 첫째, 여주인공에

게 주어진 과제가 실용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인 'Aschenputtel'에서는 재 사이에서 콩을 골라내는 일과 같이 비실용적인 과제를 준다. 하지만 콩쥐는 물동이를 채운다든가, 잡초를 뽑는다든가, 배를 짠다든가, 벼를 찢는다든가, 삼베를 삼는 등의 일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여성들이 하도록 기대되어진 일들이다. 농경사회에서의 일은 학대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서양의 전통에서 신데렐라는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품위가 떨어지는데 반해, 콩쥐에게는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드느라 그녀가 일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둘째, 결혼 이후의 고난담이 오래된 한국의 관습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이다. 이 전통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그릴 때 그들의 성격을 과장한다. 예를 들어 팔쥐와 그의 엄마는 콩쥐의 결혼을 축복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콩쥐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나쁜 인물들, 새엄마와 이복자매는 단지 콩쥐를 학대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암살자이기도 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들에서는 이복자매와 계모가 신데렐라는 학대하는 이들일지라도 생사를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물을 과장하는 한국의 관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악한 종류의 적대자를 만들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콩쥐팍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인 구조와 함께 각국의 문화적 속성을 드러내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의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익숙함을 바탕으로 한 쓰기 제재의 활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쓰기능력의 향상이라는 언어기능의 측면에서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IV.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와 내용

1.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쓰기능력 향상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은 제2외국어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언어능력의 향상이 아닌, 능숙한 수준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언어능력의 구체적인 영역, 즉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한다. 쓰기의 과정을 문제해결 과정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이 쓰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이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마찬가지로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박영목, 2008:26). 실제로 숙련된 필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면밀히 탐구해 보면 그 과정은 곧 주어진 작문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잡한 방식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수행하게 되는 문제 해결 과정은 사람들이 작문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 또는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게 되는 문제 해결 과정과 매우 비슷한 특성들을 지닌다. 이처럼 쓰기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의 각 과

정에서 문제해결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의 구성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 즉 구전에 적합하도록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⁸⁾와 간결한 표현을 가진다는 것,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 등은 글쓰기의 각 과정에서 문제해결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은 쓰기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다문화교육의 목표 또한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다문화교육의 목표, 즉 다양성과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체성확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문화 창조능력을 기르는데 훌륭한 제재가 된다. 다양한 문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지닌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쓰기교육을 위한 동기유발, 즉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적절한 특성이다. 쓰기과정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때,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구조적인 보편성과 구성요소들의 특수성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잘 짜여진 구조는 흥미를 보장하는 것이며

8) 최운식 외(2002:98-99)에 의하면 설화가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구비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도 프로프(V.Propp)(1968)을 비롯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설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 구조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은 견고한 서사구조를 지닌 다양한 설화 자료들을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 교육적 기제가 의미 있게 작용한다면 서사 구조의 체득은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 능력은 외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능력, 언어의 이해능력(읽기와 듣기) 및 표현능력(말하기와 쓰기)에 두루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인정되는 특성이다. 또한 구성요소의 특수성은 각 지역이나 문화에 맞게 변형됨으로써 흥미의 요소를 강조한다. 이처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익숙함을 바탕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이로써 쓰기라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효과적인 창의력 신장이 가능해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능력향상과 다양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데 앞서 선정한 민담 ‘콩쥐팥쥐’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작품생성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실제적 글쓰기 과정을 연습하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목표를 달성해보도록 한다.

2.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방향

일반적으로 설화의 분석에는 모티프의 개념을 사용한다. 모티프 분석을 통해 수많은 설화들의 공통성을 분석해 낼 수도 있으며 각 설화가 가진 독자성을 분석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모티프 분석을 통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내용 및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쓰기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⁹⁾

9) 설화로부터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의 프로프(V.Propp)(1968)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프는 아파나시예프의 『러시아 민담집』에 수록된 마법담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은 가변적이나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불변적이라는 원리를 찾아내고, 설화는 31개의 기능과 7개의 등장인물의 행위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프로프와 달리 레비스트로스(C.Lévi-Strauss)(1963)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법칙을 신화에 적용시켜 신화를 통해 전체 문화의 내적 체계와 무의식적 기반, 즉 랑그(langue)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레마스(A.J.Greimas)(1971)는 프로프의 민담에 대한 업적을 현대의 새로운 논리학

모티프는 이야기의 최소 단위 요소로, 이야기를 이루는 핵(核)이다. 모티프는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쉽게 기억되며, 독립적인 생명을 갖는다. 모티프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이야기의 행위자들로 신·괴물과 마녀 및 도깨비·요정(妖精)과 같은 마술적인 것들, 사랑스런 계모·사악한 계모 등과 같은 인습화된 인간 등과 같은 것들이다. 둘째는 괴상한 관습이나 신앙 등과 같이 행위의 배경을 이루는 것들이다. 셋째는 단일한 사건들로 이것이 모티프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것 역시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유형을 견지하게 해 준다(S.Thompson, 1946:415-416).

이야기는 모티프를 기점으로 사건이 형상화되고, 이 사건을 서술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모티프는 형상화 이전의 관념적인 것이다. 이런 관계로 모티프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형상화 이전의 관념적 형태에 머물고 있어서 모티프 독자적으로는 이야기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플롯(plot)¹⁰⁾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모티프에 플롯이 개입하게 되면 플롯의 구성력에 의해서 소재가 선택·동원되어, 그 조화에 따라 이야기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형상화된 이야기의 최저 단위의 골격이 화근(話根, root)이다. 즉, motif+plot→root이다(김태곤, 1975:359). 이처럼 설화는 관념적 형태인 모티프가 플롯의 작용에 의해 이야기의 골격을 갖추어 화근이 되고, 여기에 다시 플롯이 작용하여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가 된다.

설화는 모티프에 작용하는 플롯에 따라 다양한 화근을 갖추게 되고, 또한 화근과 화근 사이에 플롯이 작용함에 따라 동일한 모티프라 하더라도

과 의미론을 통해 보완하여 행위항 범주(actantial categories)를 제안한다. 이는 세 쌍의 양항(兩項)으로 되어 있으며, 프롭의 행위 반경을 체계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적인 행위소가 다른 행위소와 갖는 구조적 관계를 강조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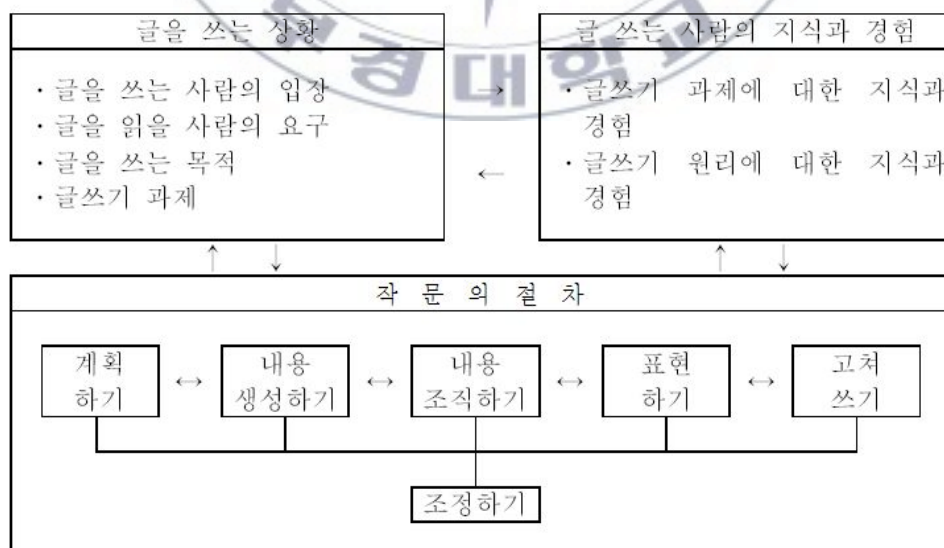
10) 여기서는 이야기를 형성하는 줄거리, 또는 줄거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엮어 짜는 일과 그 수법, 즉 구성의 뜻으로 쓰였다.

다양한 이야기로 발전한다. 따라서 모티프에 작용하는 플롯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곧 쓰기의 과정에 대입될 수 있다.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에 주목할 때,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쓰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의 양상이 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다양한 모티프에 어떻게 플롯이 작용하여 화근을 형성하는가, 또 화근과 화근에 어떻게 플롯이 작용하여 하나의 유형을 갖춘 이야기가 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쓰기의 과정, 곧 쓰기의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탐색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박영목(1994:18)에 의하면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 절차는 계획하기, 내용 창안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림-3>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의 절차



이 단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글쓰기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필자의 입장 설정 및 글의 주제의 설정, 제재의 선정 등이 이루어진다. 내용 창안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발견하기와 아이디어 조정하기가 이루어지며,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의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표현하기에서는 표현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창안·조직한 내용을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와 모티프에 작용하는 플롯을 분석·탐구하는 일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특성상 보편성과 독자성을 지니게 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동일한 모티프로 구성되어있는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동일한 모티프라 하더라도 독특한 내용구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양상은 독자성을 보편성과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내용

우선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에서 문제해결방법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 전해지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국적별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624,99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6.5%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107,969명으로 9.8%, 일본 국적자가 26,524명으로 2.4%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수 또한 중국이 54,60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5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이 22,491명으로 21%, 일본이 6,838명으로 6.3%를 차지한다. 즉 국내거주 외국인 중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숫자 또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계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을 선택하였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를 살펴보면, 1) 결혼 가정의 발단, 2) 계모의 학대, 3) 협조자의 출현, 4) 잔치, 5) 협조자의 출현, 6) 꽃신 선사, 7) 분실자의 탐색, 8) 결혼, 9) 거짓유인과 살해, 10) 악한의 대리행세, 11) 원혼의 환생과 변신, 12) 행복한 상봉, 13) 악인의 징벌과 같은 순서로 나열될 수 있고, 다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이와 유사하거나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모티프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비교·분석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 비교분석

나라 모티프	한국 '콩쥐팍쥐'	중국 '이쁜이와 곰보'	일본 '고메후쿠 아와후쿠(米福 栗福)'	베트남 '땀과 꿈'
결혼 가정의	모친이 죽고 부친이 재혼하다.	모친이 죽고 부친이 재혼하다.	모친이 죽고 부친이 재혼하다.	모친이 죽고 부친이 재혼한 뒤

발단				부친도 죽다.
계모의 학대	나무호미로 달발을 매게 하다.	계모가 학대하고 곰보가 시기하다.	밑구멍이 뚫린 주머니로 밤을 줍게 하다.	물소 돌보기, 물 길어오기, 빨래하기, 채소 가꾸기, 돼지 먹이 구해오기, 낱알 쪼기 등 온갖 일을 시키다.
제주 경합	공백.	공백.	공백.	계모가 물고기와 새우와 게를 많이 잡아오는 사람에게 빨간 천을 주겠다고 하다. 땀은 감의 계락에 넘어가 물고기를 다 빼앗기다.
협조자의 출현	검은 황소가 발을 갈아 준다.	죽은 어머니가 황소로 환생하여 이쁜이를 돌보아 준다.	하얀 새가 여의 망치를 주고 주머니를 꿰매 밤을 가득 담아준다.	부처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 주지만 계모와 감이 잡아먹다. 땀은 물고기의 뼈를 네 항아리에 담아 놓다.
잔치	계모와 팔쥐가 외갓집 잔치에 가면서 좁쌀과 벼 식 삼 쪼기, 밑 빠진 독에 물斟기, 밑 빠진 술에 밥 짓기를 시키다.	계모와 곰보가 극장에 가면서 이쁜이에게 삼정리를 시키다.	계모와 아와가 축제에 가면서 고메에게 쌀 쪼기를 시키다.	축제를 하다.
협조자의	두꺼비, 구렁이,	소의 도움으로	공백.	공백.

출현	새때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하다.	임무를 완수하다. 계모가 황소를 잡아먹고, 이쁜이 는 그 뼈를 향아 리에 담아두다.		
꽃신 선사	황소가 잔치에 갈 옷과 꽃신을 준다.	계모가 극장에 곰보만 데리고 가자 이쁜이는 화가 나서 향아 리를 깨뜨리다. 안에서 백마, 새 옷, 수놓은 신 한 켤레가 나오다.	여의망치를 3번 휘둘러 옷과 머 리장식과 왜나막 신과 하녀를 내 어 축제에 가다.	네 단지에서 비 단 옷, 말, 안장, 수놓은 신이 나 오다.
분실자의 탐색	잔치에 가다가 신발 한쪽을 잃 고 선비가 주인 을 찾다.	극장에 가다가 신발 한쪽을 도 랑에 빠뜨리다.	부잣집에서 고메 를 신부로 맞이 하러 오다.	축제에 갔다가 개울에서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 다. 왕이 발견하 고 주인을 찾다.
결혼	팔쥐에게는 신이 작고 콩쥐가 맞 아 콩쥐가 선비 와 결혼하다.	어물행상인, 쌀장 사, 기름장사의 도움을 거절하고 학자의 청혼에 허락하고 결혼하 다.	계모는 아와를 내보내지만 고메 를 데리고 가다.	땀의 발에 신발 이 맞고 땀은 왕 국으로 가다.
거짓유인 과 살해	팔쥐에게 꼬여 연못에서 익사 당하다.	곰보가 친절에 온 이쁜이를 꼬 여 우물에 빠뜨 린다.	공백.	아버지 기일에 집에 온 땀이 계 모와 감에게 속 아 연못에 빠져 죽다.
악한의 대리행세	팔쥐가 콩쥐 행 세를 하다.	곰보가 이쁜이로 변장하여 학자에 게 가다.	공백.	공백.
원혼의 환생과 변신	콩쥐가 연못의 꽃으로 환생하다. 팔쥐에 의해 뜯	이쁜이가 새가 되어 곰보를 괴 롭히자 곰보가	공백.	땀은 새가 되지 만 감에게 다시 죽고, 계속해서

	겨 아궁이 속에서 구슬로 변신하다.	새를 죽이다. 새가 대나무로 변하자 곰보는 대나무로 침대를 만들어 누우나 가시가 돋쳐 길바닥에 내버리다.		죽임을 당하고 변신하다. 나무-베틀-재-나무열매로 변신하다.
행복한 상봉	콩쥐가 이웃집 노파의 도움으로 부활하여 남편과 재회하다.	침대를 주워온 이웃의 주머니장사 할머니의 도움으로 미인으로 변해 남편과 재회하다.	공백.	나무열매가 어느 할머니의 주머니 속에 떨어지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과 재회하다.
재주경합	공백.	곰보는 자기가 본처라고 우기며 달걀 밟기, 칼사다리 오르기, 끓는 기름술에 들어가기 시험을 하다.	공백.	공백.
악인의 징벌	팔쥐를 죽여 고기를 만들어 계모에게 먹이고 계모도 죽다.	곰보는 기름가마솥 안에서 타 죽다. 곰보의 시체를 상자에 넣어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도 곰보의 시체를 보고 죽다.	아와도 시집가고 싶다고 하여 계모가 절구에 태워 돌아다니다 연못에 빠져 둘다 죽다.	놀란 깜이 아침하기 위해 땀에 게 아름다움의 비결을 묻고, 땀의 계략으로 감은 끓는 물에 죽다. 감을 소스로 만들어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도 놀라 죽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로서의 유사한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이야기마다 다른 이야기와는 다르게 어떤 모티프는 있거나, 어떤 모티

프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이야기가 신데렐라 유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또 다른 특성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모티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독으로는 이야기를 형성할 수 없는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이야기의 요소, 즉 화근을 형성하게 될 때, 각각 독자적인 플롯이 작용하여 다른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내용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보편성과 독자성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모티프와 플롯의 양상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에 있어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쓰기의 과정을 문제해결과정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이 쓰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이다.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 절차는 계획하기, 내용 창안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에서는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마찬가지로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 쓰기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보편적이고 독자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모티프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차례대로 고찰해 본다.

가. 계획하기

계획하기는 어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고 작용이다. 계획하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기도 한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필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작문과정에서의 계획하기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계획하기는 작문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작용이다. 계획하기 과정에서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작문 상황을 탐색해야 하고,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해야 한다. 먼저 글을 쓰기 전에 필자가 해야 할 일은 작문의 상황을 탐색하는 일이다.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의 요구,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 주제, 글을 쓰는 구체적인 목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탐색하는 것은 글을 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된다.

작문 상황의 탐색은 구체적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탐색 가능하다. 설화에 있어서는 누구나 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민중으로 설정되는 화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핵심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을 하게 된다는 점, 고정된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점이 그러한 특성에서 말미암는다. 이러한 양상은 필자의 입장을 정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독자의 요구를 생각해야 하며, 결정된 필자의 입장이 글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작문 상황에서 예상 독자의 요구 또한 탐색해야 한다. 예상 독자의 요구를 분석할 때에는 예상 독자가 처한 구체적 환경, 즉 연령, 사회적·경제적

· 종교적 · 문화적 · 교육적 배경, 가치관과 신념, 취미와 관심 등이 분석 대상이 된다. 예상 독자의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청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누구나 구연되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청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자의 연령의 비롯하여 구체적인 환경, 가치관과 신념, 취미와 관심 등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설화에서는 이러한 청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보편성과 독자성을 띠게 된다. 즉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을 취하더라도 고유한 문화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독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독자가 처한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글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작문 상황에서 탐색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주제는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독자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글의 중심 생각이다. 글을 쓰는 상황에서 필자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필자는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 예상 독자에 대한 자기의 기대, 필자에 대한 예상 독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글의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화자의 입장과, 청자의 요구 등에 따라서 주제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누구나 화자와 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보편성과 독자성을 띠게 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나타나는 주제의 구체적인 설정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전래동화를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한 결과¹¹⁾를 보면 기지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기지(機智), 유머에 빼어난 민족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혼

11) 여영택(1964:196)에 의하면 한국의 전래동화 주제는 다음과 같이 기지형, 혼계형, 보은형, 보복형, 갈복형, 신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형(訓戒形과) 보은형(報恩形)이다. 이들은 모두 교훈적인 것으로, 이 둘을 합하면 약 50%가 된다. 이처럼 전래동화의 주제는 교훈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래동화의 주제 경향을 대강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전래동화는 그 주제가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콩쥐팥쥐’의 경우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는 내용으로 그 주제가 훈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훈적인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되는 것이다. ‘콩쥐팥쥐’의 주제가 설정되는 이러한 양상은 글의 주제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자의 입장과 독자의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문 상황에서 탐색해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 글의 목적 설정이 있다. 글의 목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글을 씀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둘째, 이 글을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가? 셋째, 이 글을 읽고, 예상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가?(박영목, 2008:27) 이상과 같은 물음에 스스로 답해 봄으로써 필자는 자신이 쓰는 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그 목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글의 목적을 탐색하기 위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목적이 설정되는 양

주제	수	비율
기지형(機智形)(기지, 유머, 명재판)	53	29.1%
훈계형(과욕, 노력, 善德惡禍, 인자, 후덕, 형제우애 등)	51	28.0%
보은형(보은, 효성)	39	21.4%
보복형(보복, 강자에게, 중국에, 부자에게)	33	18.1%
갈복형(渴福形)(효행으로, 모험으로, 생명 연장, 승천)	22	12.1%
신비형(미지에 대한 공포, 神助, 왕의 신비)	9	4.9%

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질문을 바탕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목적을 살펴보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화자가 되는 대다수의 일반 민중들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구연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예상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화에 나타난 이러한 민중의 의식을 통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연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연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와 낙관적인 삶에 대한 믿음과, 힘써 노력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믿음, 그리고 삶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목적 설정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나타난 민중의 의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의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글을 통해 성취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독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획하기 과정에서 밟아야 할 또 다른 전략은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머릿속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글의 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을 쓰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는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해야 한다.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구상할 때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 내용 구조도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화에 있어서는 상위 개념이 모티프가 될 것이고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형성된 화근이 하위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있어서 개략적인 구도를 구상한다 함은 상위개념인 모티프를 작성하고 각각의 모티프에 따른 화근을 형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모티프를 배열한다는 것은 글의 통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이고,

화근을 형성하는 일은 계열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글 전체의 구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 전체의 구도를 작성할 때에는 지나치게 세부 내용에 집착하거나, 글의 하위 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항들의 처리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글 전체의 구도는 하나의 습작에 불과한 것이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박영목, 2008:28). 이 역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적용하여 보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화근이 되고, 다시 거기에 플롯이 작용하여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글 전체의 구도를 작성하는 일은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핵심요소, 즉 모티프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모티프 수준의 결정에서는 거기에 속하게 될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민하는 일 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한 배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열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데렐라유형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앞의 <표-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대개 13개의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신데렐라 유형의 이야기 들임에도 각 이야기들은 저마다 모티프를 공유하기도 하고, 어떤 모티프는 없거나 어떤 모티프는 부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티프 중에서 ‘악한의 대리행세’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중에서 한국과 중국에는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티프 차원에서의 구조가 반드시 하나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모티프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티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플롯이 더해져 하나의 이야기가 될 때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티프 차원에서

의 구도 작성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2> 모티프 배열의 예

기본 모티프	1)결손가정의 발단 2)계모의 학대 3) 협조자 출현 4)잔치 ... 10)악한의 대리행세 11)원혼이 환생과 변신 12)행복한 상봉 13)악인의 징벌
모티프 삽입	ex) 2), 3) 사이에 ㉠제주경합모티프 삽입 12), 13) 사이에 ㉡제주경합모티프 삽입 등
모티프 삭제	ex) 10) 삭제 등
모티프 배열	1)-2)-㉠-3)-4)-5)-6)-7)-8)-9)-11)-12)-㉡-13)

이상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문제해결 양상을 알아보았다. 계획하기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작문의 상황, 즉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의 요구,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 주제, 글을 쓰는 구체적인 목적을 탐색해야 하며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해야 함을 들고 설화의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적용해 보았다. 일반 민중 누구나 구연하고 전달·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여기에서 주제와 목적이 파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티프를 기본으로 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통한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문제해결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필자의 입장과 보편적인 독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이를 통해 전개될 수 있는 주제와 글의 목적이 었다.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로서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특정 독자를 구분 짓지 않고 전승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문화교육의 전제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고 할 때,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지니는 보편적인 전승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 내용 창안하기

글을 쓰기 전에 필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연구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창안해 낸다. 필자는 자신의 직접 체험이나 간접 체험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미리 생각하거나 연구한 내용에 세부 내용을 보충함과 아울러 필자의 생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내용과 내용 사이에 논리적 연결을 짓는다.

내용을 창안하는 일은 글을 쓰기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글쓰기 과정은 먼저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한 내용을 조직한 후에 글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쓰기의 하위 과정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서 내용을 창안하는 일은 또 하나의 문제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내용을 창안하고, 그 중심내용에 맞는 세부내용을 창안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글쓰기에서의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고 유형에 따라 생각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의 세부 내용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필자 스스로 제기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몇 가지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의 식별 - 그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 누가 그것을 하였는가? 무엇이 그것을 하였는가? / 누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는가?

- 문제의 분석 -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부분, 영역이 무엇인가? /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 그것

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들의 논리적 순서는 무엇인가?

- 문제의 묘사 -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 그것의 특징적인 모습 혹은 물리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었는가?

- 문제의 분류 - 그것의 하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것의 상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것과 대등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상위 종류, 하위 종류, 대등한 종류로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 문제의 비교와 대조 - 그것과 비슷한 것에 무엇이 있는가? / 그것들과 서로 어떻게 비슷한가? /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 문제와 연관되는 사건의 서사 - 무엇이 일어났는가?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 언제 그것이 일어났는가? / 어디서 그것이 일어났는가?

- 문제와 연관되는 일과 과정 규명 -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 그것의 발생 단계 및 작용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문제와 연관되는 일의 원인과 결과 규명 -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 그것의 목적 및 의도는 무엇인가? / 그것과 다른 것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박영목, 2008:79-91)

이렇게 중심내용 창안하기와 세부내용 창안하기로 이루어지는 내용 창안하기의 과정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성에서 모티프의 생성과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화근의 생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모티프는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는 이야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모티프에 플롯이 더해져야 화근이 되는 것이며, 또한 화근에 플롯이 더해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에

서 내용 창안하기란 바로 모티프에 플롯을 적용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며, 상기 질문들은 그러한 플롯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모티프에 플롯을 적용시키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택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같은 모티브를 가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모티프가 어떠한 플롯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자성을 가진 이야기가 생성된다. 구체적으로 ‘결혼 가정의 발단’이라는 모티프에는 ‘콩쥐의 가정’, ‘이쁜이의 가정’, ‘고메후쿠의 가정’, ‘땀의 가정’이 선택되어 각각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표-1>에서 ‘콩쥐팥쥐’와 다른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들의 모티프와 그에 따른 화근의 모습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화근의 형성과정을 상기 질문들에 대응하여 답을 찾아봄으로써, 세부내용 창안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표-3> 내용 창안하기 질문에 따른 화근 양상

질문		모티프	화근 양상			
문제의 식별	· 그(그것)는 누구(무엇)인가? · 누가(무엇이) 그것을 하였는가? · 누가(무엇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는가?	결혼 가정의 발단	콩쥐의 가정	이쁜이의 가정	고메후쿠의 가정	땀의 가정
			· 아버지가 재혼함. · 어머니의 죽음에 결혼가정을 만듦.			
문제의 분석	·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부분, 영역이 무엇인가? ·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계모의 학대	나무호미로 달밭매기	학대	뿔린 주머니에 밤줍기	물소 돌보기, 빨래하기

	·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들의 논리적 순서는 무엇인가?					, 날알 쥘기 등.
			· 각 전승국에서 일상적인 일들로 구성. · 일상적인 일을 시킴→차별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만듦→수행 못할 시 학대가 이루어짐.			
문제의 묘사	·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 그것의 특징적인 모습 혹은 물리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었는가?	협조자 출현	검은 황소	황소	하얀 새	부처 님
			· 주로 어머니의 환신이거나 신력을 가진 대상. · 신비하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해결해준 뒤 사라짐.			
문제의 분류	· 그것과 대등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잔치	외갓 집 잔치	극장	축제	축제
문제의 비교와 대조	· 그것과 비슷한 것에 무엇이 있는가? · 그것들과 서로 어떻게 비슷한가? ·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꽃신 선사	꽃신	수 놓은 신	왜나 막신	수 놓은 신
			· 모두 신발이라는 공통점. · 모양 등 지역적 특색이 드러남.			
문제와 연관되는 사건의 서사	· 무엇이 일어났는가?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 언제 그것이 일어났는가? · 어디서 그것이 일어났는가?	분실자의 탐색	· 신발을 잃어버림. · 귀인이 신발의 임자를 찾음. · 귀인이 신발의 임자와 결혼할 것임. · 잔치, 극장, 축제에 가			

			는 중에 혹은 가서 잃어버림. • 도랑이나 개울에서 잃어버림.
문제와 연관되 는 일과 과정 규명	•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결혼	• 신발의 주인이 주인공으로 밝혀짐. • 주인공의 신분상승. • 행복한 결말 혹은 후일담.
문제와 연관되 는 일의 원인과 결과 규명	•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 그것의 목적 및 의도는 무엇인가? • 그것과 다른 것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거짓 유인과 살해	• 계모와 그 딸의 탐욕. • 주인공의 죽음. • 주인공의 대리행세. • 악인 징벌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내용창안하기에서 필자가 세부내용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여러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들에 적용시켜, 모티프와 화근 분석을 바탕으로 답을 구해 보았다.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 가지의 모티프만 대응시켜 답을 구해 보았으나, 각 문제는 모든 모티프에 적용 가능하며, 모티프에 대한 그러한 모든 질문들은 모티프에 적용되는 플롯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모티프를 바탕으로 화근이 형성되어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이와 같은 양상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용 창안하기, 즉 계열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 선택하기가 가능해진다.

<표-4> 내용요소 선택의 예

모티프	2)계모의 학대	㉠제주경합	...	㉡제주경합	13)악인의 징벌
-----	----------	-------	-----	-------	-----------

내용요소	때리기 끓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	미모 달리기 공부 요리 ...	...	미모 달리기 공부 요리 ...	죽이기 때리기 쫓아내기 투옥하기 ...
------	-----------------------------------	------------------------------	-----	------------------------------	-----------------------------------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설화를 통한 내용 창안하기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의 설화 즉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일한 모티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티프에서 형성된 화근은 저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모가 주인공에게 시키는 일이 주로 그 문화권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로 설정되어 있다.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일 자체가 학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에게는 열악한 도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차별을 줌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학대로서 작용하게 되는 구조이며, 이야기에 나타나는 일들은 밭 갈기, 밤 줍기, 물소 돌보기 등 각 문화권의 일상적인 일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잔치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갓집 잔치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중국, 일본 등 다른 문화권에서는 극장, 축제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용되는 플롯은 각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설화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모티프로 존재하며, 해당 문화권의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요소가 달라짐을 알게 되면 다른 문화의 구성 요소 또한 우리 문화의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내용 조직하기

글을 쓰기 위해 작문상황을 탐색하고,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한 뒤 세부 내용까지 창안한 후에는 창안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창안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한다면 좋은 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글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조직한다는 말이다. 앞서 내용 창안하기가 계열성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과정이라면, 내용 조직하기는 통합성에 초점을 맞춘 결합적 과정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통해 내용 조직하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보통의 말로 구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인 능력이나 학습 없이도 구전이 가능한 이유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전은 구절구절을 완전히 기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여기에 화자나름의 수식이 덧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구전에 적합하도록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를 지닌다.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적절히 조직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구성 원리와 전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용의 구성 원리에는 통일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강조성의 원리 등이 있다(박영목, 2008:90). 통일성의 원리는 글의 주제와 그것을 뒷받침하여 서술하는 모든 재료들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재료 선택의 요건을 말한다. 즉 통일성의 원리는 글의 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글 전체의 주제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종속 주제들을 선택해야 한다.

종속 주제들이 글 전체의 주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나 글 전체의 주제에 비해 상위 개념일 경우 그 글은 결코 통일성을 갖춘 글이 될 수 없다.

‘콩쥐팍쥐’에서 글 전체의 주제를 확인하면, ‘콩쥐팍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주제가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는 교훈적인 훈계형에 속한다. 통일성의 원리에 따르면 중심 주제에 따라서 연관되는 종속주제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콩쥐팍쥐’의 중심 주제 외에, 이야기의 각 부분들을 살펴보면 콩쥐가 계모의 학대에도 참고 견디며 착하게 살아가다 귀인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나, 팍쥐가 스스로의 됃됨이에 걸맞지 않은 욕심을 부리다 결국 죽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것과 같은 종속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콩쥐팍쥐’의 종속 주제들은 ‘콩쥐팍쥐’의 교훈적인 주제를 잘 뒷받침하며 이야기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도록 해 주고 있다. ‘콩쥐팍쥐’의 주제 발현 양상을 통해 글을 구성하는데 있어 글 전체의 통일성이 어떻게 갖추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일관성의 원리는 문단을 이루는 여러 문장이나, 한 편의 글을 이루는 여러 문단이 긴밀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통일성의 원리가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는 요건에 관한 원리라면, 일관성의 원리는 글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글의 주요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에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은 사건의 주요 내용을 발생한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은 장소나 사물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공간적 구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은 추상적 개념이나 현상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그 내용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일관성의 원리를 도출해 보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구전의 특성상 일관되지 못한 구성의 이야기는 구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것은 복잡한 구조를 취하기보다 단순한 구조를 취하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특징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콩쥐팥쥐’를 예로 들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면, 우선 사건의 주요 내용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는 또한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이기도 한데, 처음에 제시되는 내용이 먼저 일어난 일이며 나중에 제시된 내용이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먼저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난 일이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게 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계모의 학대가 먼저 일어나고 황소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잔치가 열릴 때 황소는 잔치에 신고 갈 꽃신을 준다. 이 사건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 등장한 황소가 뒤에 이어서 꽃신도 선사함으로써 논리적 순서에 따른 배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콩쥐팥쥐’에서는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민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인물들의 행위가 내용 구성의 중심이 되고 구체적인 공간묘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콩쥐팥쥐’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조성의 원리는 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나 주요 내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글 전체를 구성할 때에는 물론이고 하나의 문단을 구성할 때에도 지켜야 할 원리이다.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충실히 제공해 준다. 그럼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필

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는 강조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구전은 핵심적인 구조에 화자의 수식이 덧붙여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의 강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콩쥐 팥쥐’에서 주제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계모의 학대, 계모와 팥쥐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계모의 학대는 추상적인 괴롭힘이 아닌, 달밭을 나무호미로 매기, 쌀과 벼를 석 삼이나 찢기, 밭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밭 빠진 가마솥에 밥 짓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로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계모와 팥쥐의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벌을 받고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팥쥐를 죽여 고기를 만들어 계모에게 먹이자 그것을 알게 된 계모도 괴로워하다가 죽는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악인에 대한 잔인한 징벌을 뚜렷하게 강조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대개 단순한 구조 자체가 강조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의지에 따라 내용의 강조가 쉽게 일어나고 그것은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내용 강조 양상을 통해 글의 강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을 적절히 조직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구성 원리뿐만 아니라 내용의 전개 원리 또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의 전개 원리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으로서 서사와 과정, 인과 등이 있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분석과 묘사, 분류와 예시와 정의, 비교와 대조, 유추, 논증 등이 있다.

글쓰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 전개 원리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글의 종류나 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을 수 있고, 나타나지 않는 원리도 있을 수 있다. 소설, 시, 기사, 수필, 논설 등 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전개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글의 통일성, 일관성, 강조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문제해결양상으로서의 글쓰기에서 내용의 전개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그 장르적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와 인과의 전개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서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동의 전개에 따른 행위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특정의 사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서사의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창안하거나 전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필자 스스로에게 제기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무엇이 일어났는가? 둘째,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셋째,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넷째,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서 서사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모티프의 전개양상으로 드러난다. ‘거짓유인과 살해’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위의 질문에 답을 해 보면, 첫째, 결혼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둘째, 거짓유인과 살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악한이 대리행세를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 이 사건은 목욕하러 갔을 때 연못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모티프의 구체적인 조직양상이 글의 전개원리 중 서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인과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할 때에는 필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

기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그것은 다른 것과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가?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서 인과의 양상은 서사와 같이 모티프의 전개양상으로 드러난다. ‘악인의 징벌’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위의 질문에 답을 해 보면, 첫째, 악한이 주인공을 죽였다. 둘째, 악한 죽임을 당한다. 셋째, 주인공을 확대한 계모까지 죽는다. 이러한 모티프의 구체적인 조직 양상이 글의 전개원리 중 인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 조직하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내용 구성 원리와 내용 전개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내용과 구성의 원리는 내용의 결합성에 초점을 맞춰 결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내용조직에 있어서의 다문화적 양상은,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모티프 결합이 ‘결손가정의 발단 - 계모의 확대 - 협조자 출현 - 잔치 - 협조자의 출현 - 꽃신 선사 - 분실자의 탐색 - 결혼 - 거짓유인과 살해 - 악한의 대리행세 - 원혼의 환생과 변신 - 행복한 상봉 - 악인의 징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티프 결합 양상은 하나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티프의 결합 양상이 내용 조직의 측면에서 통일성과 일관성, 강조성 등 내용 구성 원리는 물론이고 적절한 내용 전개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형태인 것이다. 전혀 새로운 형태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적절히 조직된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양상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보편성을 습득할 수 있는 제재임이 분명하다.

라. 표현하기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있어서 표현하기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 과정 및 조직하기 과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내용 생성하기 및 조직하기의 결과는 완결된 언어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동적인 반면에, 표현하기의 결과는 완결된 언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이다. 표현하기 과정에서 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상되는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자 중심으로 된 내용을 독자 중심의 내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표현하기 과정에서 필자가 지켜야 할 원리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것, 독자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할 것, 독자가 기억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표현할 것 등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단어의 선택, 문장의 명료성과 연결성, 표현기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박영목 외, 2004:261).

구체적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추상어보다는 구체어, 일반어 보다는 특수어가 선택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구체어나, 보다 상위개념을 가리키는 일반어 보다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구체어, 보다 하위개념을 가리키는 특수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표현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즉 독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표현하기를 고려한 결과이다. 광범위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특성상 그 독자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가 선택되는 것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에 밀착되는 구체적인 단어들을 선택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은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잔치 혹은 축제가 열리고, 결혼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련의 사람의 일상에서 사건들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이 하는 일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나무호미’, ‘달밭’, ‘주머니’, ‘밤’, ‘물소’, ‘물 길기’, ‘빨래’, ‘채소’, ‘돼지먹이’, ‘날알 쪼기’ 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들이 선택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위개념보다는 하위개념을 주로 사용된다. 이야기에 나타나는 협조자들은 ‘동물’과 같은 상위개념이 아닌 ‘검은 황소’, ‘두꺼비’, ‘구렁이’, ‘새 떼’, ‘하얀 새’라는 특수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장의 명료성이나 연결성을 고려하는 점도 표현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분명한 이해를 돕는 문장의 사용과 문장의 적절한 연결은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전승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구전문학인 민담으로서 전승되어 온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간결한 구조를 요구했고, 이와 같은 전승방식에 의해 문장 또한 명료하고 쉽게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내용의 조직이 시간 순서, 인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므로 복잡한 문장의 사용이 없이도 표현 가능했다는 점이나 대다수의 민중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표현기법의 사용도 표현하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비유법, 강조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은 글의 유형, 목적, 그리고 독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기법은 앞서 내용 조직하기에서도 언급한 강조법이다. 강조법은 문단수준뿐만 아니라 문장수준에서 두루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복동생의 못된 성정을 강조하면서 주인공의 착한 성정을 강조한다든지, 주인공의 행복한 결혼이 이복동생에 대비되어 강조된다든지, 이복동생과 계모의 죽음에 대비되어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이 강조된다든지 하는 점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독자의 요구를 수용한 표현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독자의 요구를 수용한 표현하기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알 수 있으며 보편적 독자를 상정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표현하기는 주로 간결하면서도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쓰기교육에 적용 가능하다.

마. 고쳐 쓰기

고쳐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작성한 글이 계획하기 과정에서 설정한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고쳐 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 문장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는 모티프 배열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글 전체 수준에서는 통일성, 일관성, 연결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각국의 신데렐라 유형을 비교하면서 살펴 보았듯이, 베트남의 이야기에 존재하는 ‘재주경합’ 모티프가 한국, 중국,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에 존재하는 ‘악한의 대리행세’ 모티프가 일본과 베트남의 이야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등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속하더라도 각기 모티프의 선택과 배열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사한 모티프를 공유하면서도 각 이야기의 통일성, 일관성,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선택과 배열을 하기 때문이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는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형성된 화근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 구조의 적절성, 아이디어의 배열순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원혼의 환생과 변신’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모티프에 플롯이 작용하여 한국의 이야기는 콩쥐가 연못의 꽃으로 환생

했다가 팔쥐에게 뜯겨 아궁이 속의 구슬로 변신한다. 중국의 경우 이쁜이가 새가 되었다가 침대가 된다. 베트남의 경우 땀은 새가 되었다가 나무, 벚꽃, 재, 나무열매가 된다. 각기 새로운 대상으로 다시 환생하고 변신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환생과 변신의 연속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적절한 대상의 배열이 필요하다. 이복동생에게 죽임을 당해 환생하지만 또다시 이복동생의 괴롭힘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변신함으로써 ‘원혼의 환생과 변신’에 개연성이 부여될 수 있다.

문장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는 앞서 단어 선택의 문제와 표현기법의 적절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단어의 선택과 강조법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표현, 즉 각 문화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서 중요시되는 선인과 악인이 잘 대비되어 강조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고쳐 쓰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들은 최종적으로 글쓰기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낙관적인 삶에 대한 믿음과, 힘써 노력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믿음, 그리고 삶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승된다. 따라서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글 전체, 문장, 문단을 살펴 그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목적은 결국 이 이야기가 전승되는 곳의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다문화적 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V.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교육의 실제

1. 수업 지도 방안

교육과정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통해 쓰기교육 지도방안의 방향을 살펴본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한다. 국어과교육과정(2007)에 의하면, 작문의 과정에서 필자는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판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하여 필자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신장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학문 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작문의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를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활동과 문제 해결 활동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쓰기를 비롯하여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상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타나있지 않다.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 가정 지원대책’에서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기존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는 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

한 언급이 없다. 다만 다문화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화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참고로 하여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구체적 지도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박영목(2004:256)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 절차’를 계획하기, 내용 창안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인지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 근거한 박영목의 모형은 주어진 작문 과제에 대하여 한 편의 글을 생산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사고 작용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별로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 전략으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작문의 상황을 탐색하기,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하기,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기, 생성한 내용을 글의 조직 원리에 맞추어 전개하기, 표현하기와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 중심으로 표현하기와 글의 목적 중심으로 고쳐 쓰기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다문화적 쓰기 지도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5>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한 쓰기 지도방안

단계	지도 방안	전략
쓰기 준비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알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보편적 내용 파악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독자적 내용 파악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계획하기	• 독자를 고려하여 주제 및 목적 설정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독자 알기 • 전체 구도 작성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 파악	• 스스로에게 과제 설명하기 • 독자에게 계획 설명하기

	하기 - 모티프 선택·배열하기	
내용 창안하기	· 세부내용 창안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다양한 세부 내용 양상 파악하기 - 각 모티프의 구체적 내용 선택하기 - 문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 선택하기	· 브레인스토밍 · 항목 작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 내용 구성 원리 파악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모티프의 통일성, 일관성, 강조성 파악하기 · 내용 전개 원리 파악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서사, 인과 등 모티프 배열 원리 파악하기	· 내용 구조도 작성하기
표현하기	· 독자 중심의 내용으로 표현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 파악하기 - 단어 선택, 문장 배열, 표기법의 종류 파악하기	· 표현기법 적용하기
고쳐 쓰기	· 글의 목적에 맞게 고쳐 쓰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검토하기.	· 오류 찾기
직접 쓰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써보기 - 스스로 정한 주제, 독자, 목적에 따라 모티프를 선정, 배열하여 자신의 표현법으로 글을 쓴다. - 모티프 구성요소 바꿔보기, 결말 바꿔보기	· 문제해결과정 적용하기

2. 수업 지도의 실제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도방안을 토대로 교육과정상의 단원을 재구성하여 실제 수업지도안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가. <중2-2. 5. 창작의 즐거움> 수업지도의 실제

<중2-2. 5. 창작의 즐거움>의 단원은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여기서는 수필과 소설을 제재로 하여 창작의 과정을 익히고, 보충·심화를 통해 수필과 소설을 새롭게 창작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 단원의 제재를 ‘콩쥐팥쥐’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로 설정하여 창작의 과정을 익히고, 새롭게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창작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 단원의 학습목표

- 글을 창작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글을 창작할 수 있다.

(2) 단원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을 직접 창작해 보는 경험을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을 직접 창작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단원은 글을 직접 창작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되므로 글쓰기에 익숙함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제

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습활동은 창작의 과정에 따라 전개되도록 구성하였다.

(3) 교수·학습 운영 방안

<표-6> 교수·학습 운영 방안

구분	차시	교수·학습 내용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익히기	1	· 여러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모티프 구성 알기 ·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 과정에 따라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세부내용 분석하기
직접 쓰기	2	· 신데렐라유형을 바탕으로 파악한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 과정에 따라 직접 글쓰기 · 모티프의 구성 요소를 각자 바꿔보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4) 지도상의 유의점

글을 직접 창작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므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또 모두에게 익숙한 제재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자신감을 북돋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본시 학습 지도안

<표-7> 본시 학습 지도안

단원		5. 창작의 즐거움		차 시	1/2
학습목표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수업내 용	교수-학습활동		시 간 (분)	자 료
		교사	학생		
도 입	학습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상호 인사한다. · 출결을 확인한다. · 학습 환경을 점검한다.	· 상호 인사한다. · 수업태도를 바르게 한다.	1	
전 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함께 읽어보 게 한다.	·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P P T
	내용 학습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학습한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특성을 공부해 봅시다.”	·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15	학 습 지
	개별학 습	· 한국 · 중국 · 일본 · 베 트남의 신데렐라유형 이 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 고, 하나의 이야기를 정해 각자 분석한다. “나라마다 조금씩 이야 기가 다릅니다. 가장 재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선택해 구성요소를 분석 해 봅시다.”	· 각 나라들의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차이점을 안다. ·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 하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양 상을 파악한다.	20	학 습 지, P P T

		· 원하는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본다. “여러분이 분석한 것을 발표해보도록 합시다.”	· 자신이 분석한 글을 발표해 보고,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마 무 리	학습내용 정리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준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5	
	과제 및 차시 예고	·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준비를 한다.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예고한다.	· 오늘 분석한 내용을 글쓰기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본다.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생각해 본다.	2	P P T
	수업 마무리	· 학습 내용에 질문이 있는지 확인 · 대답한다. · 상호 인사한다.	· 학습 내용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 상호 인사한다.		

단원		5. 창작의 즐거움		차시	2/2
학습목표		·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글을 창작할 수 있다.			
학습단	수업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교사	학생		

계				)	
도 입	학습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상호 인사한다. · 출결을 확인한다. · 학습 환경을 점검한다.	· 상호 인사한다. · 수업태도를 바르게 한다.	1	
	전시 학습 확인	· 교사-학생 간 질문 형식을 통해 전시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와 구성요소에 대해 말해 봅시다.” · PPT 자료를 이용해 전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PPT를 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본다. -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기억해 본다. · PPT에서 제시하는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와 구성요소를 확인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도록 한다.	3	P P T
전 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함께 읽어보게 한다. “오늘 배울 학습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 PPT를 통해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1	P P T
	내용 학습	·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글쓰기는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익힌다. ·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여러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한다.	10	학 습 지

	개별학 습	·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모티프가 적혀있는 학습지를 나눠준다. · 하나의 모티프를 선택하게 하여 구성요소를 바꿔보게 한다. · 구성요소를 바꿈에 따라 결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보고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보게 한다.	· 학습지에 나타나 있는 모티프를 하나 선택하여 자신이 구성요소를 바꿔본다. · 구성요소가 바뀔에 따라 결말에 영향을 주는 지 생각해보고 결말의 형태에 따라 이야기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보고 적는다.	15	학 습 지, P P T
		· 구성요소의 변화로 인해 이야기의 의미가 바뀔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구성요소를 바꾸려고 할 때는 글쓰기 단계별로 유의해야할 점을 생각하면서 바꿔봅시다.” - ex) “주인공이 잃어버린 것이 ‘신발’이 아니라면 뒤 이야기와 연결이 달라지겠죠? 내용 조직을 생각하면서 바꿔봅시다.” · 원하는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감상을 말해 본다. “여러분이 쓴 글을 발표해보도록 합시다.”	·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각 단계별로 유의할 점을 상기한다. ·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모티프의 구성요소가 다른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바꿔본다. ·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해 보고,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마 무 리	학습내 용 정리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준다. 구성요소를 바꿔 쓰면 다양한 의미가 도출됨을 정리한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 판서 내용 및 학습지를 통해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구성요소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3	
	과제 및 차시예 고	· 오늘 썼던 글을 다른 학생들과 바꿔 읽고 감상문을 써 오도록 한다.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예고한다.	· 오늘 썼던 글을 누구와 바꿔 읽을 지 생각해 본다.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생각해 본다.	2	PP T
	수업 마무리	· 학습 내용에 질문이 있는지 확인 · 대답한다. · 상호 인사한다.	· 학습 내용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 상호 인사한다.		

VI. 결론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일어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문화의 전이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다양한 문화의 양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되었고 한 사회 속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문화 충돌 등 지구 곳곳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종종 부각되곤 한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외국 노동력의 유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치적·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단일 민족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양상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의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또한 그 사회의 특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문화 또한 한국의 특성을 나타내고 성격을 규정지으며 한국인이 공유하는 무형의 실체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라는 공고한 문화의 틀 속에서 생활한 한국으로서 다양한 문화의 유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배타적인 입장

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문화양상을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쓰기는 의사소통 행위이자, 의미구성 행위 그리고 의사결정 행위이다. 언어 표현 기능 중에서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쓰기 행위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므로 언어능력의 발달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등 다른 언어 기능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닌,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적 쓰기교육을 위한 제재로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 유형이면서도, 각각의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성 또한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재이다. 이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부합되며, 모두에게 익숙한 제재를 이용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쓰기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글쓰기를 문제해결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의 요구, 주제 설

정, 목적 설정, 개략적인 구도 작성을 살펴보고, 내용 창안하기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내용 구성 원리와 전개 원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표현하기에서는 예상독자를 고려한 단어와 표현기법의 사용을 알아보았으며 고쳐 쓰기에서는 글의 목적에 맞게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글쓰기 단계에서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문화적 시각을 알아보았다.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하여 마련한 다문화적 쓰기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실제 지도안을 작성하여 보았다. <중2-2. 5. 창작의 즐거움>단원을 중심으로 신데렐라유형 이야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제 적용 양상을 마련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방안을 실제 교육에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서원(2005), 「설화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학위 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교육과정』.
- 권순희(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 김갑성(2008),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18,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기창(1987),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8, 국제어문학회.
- 김정란(2004),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 논장.
- 김창란(2005), 「설화 교육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태곤(1975), “무가의 형성체계”, 『서원 박용구 박사 회갑기념 논총』, 동간행위원회.
- 김현선·최자운(2004), “<신데렐라>와 <콩쥐팍쥐>이야기의 비교 연구”, 『인문논총』, 경기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김환희(2007), 『옛 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 김형철 외(2010), 『중학교 국어 1-1』, 교학사.
- 노미숙 외(2010),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 노정은(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용 학습 교재 개발 연구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류현주(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연숙(2007), “<콩쥐팍쥐>와 <고메후쿠 아와후쿠(米福栗福)>의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23, 동아시아일본학회.
- 박영목(1994), “작문능력 신장방안 연구”, 『교육연구논총』 10,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 _____ (2008), 『작문교육론』, 역락.
- 박영목 외(2004), 『국어교육학원론』, 박이정.
- 박영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 박영민 · 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재의 · 강현석(2009),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사회과교육』 48,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박현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텍스트 활용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서대석(1994),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 『구비문학연구』 1, 한국 구비문학회.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 손연정(2004), 「설화 제재와 과정 중심 전략을 활용한 창작 교육」,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신헌재 외(2008), 『초등 국어과 교수 · 학습 방법』, 박이정.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 교육의 개념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여영택(1964), “전래동화의 연구”,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출판사.
- 오성배(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 오윤선(2006),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팍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 번역』 11, 건국대학교동화와번역연구소,
- 우인혜(2008), “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과제”,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 연구』 30, 국어교육학회.
- 이경화(1996), “문식성 지도를 위한 언어 중심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 이계풍(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문 특징 연구」, 광주교대 석사학위 논문.
- 이재분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차숙(1995), “효과적인 유아 문식성 지도를 위한 이론적 탐색”, 『유아교육연구』 15, 한국유아교육학회.
- 임지현(2008), 「문학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장덕순(1957), “<CINDERELLA>와 <콩쥐팍쥐>”,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 장미혜 외(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주희(2004), 「설화를 통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 협동작문을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
- 주경란(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 논문.
- 주종연(1993),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童話와의 比較研究2 <콩쥐 팔쥐>와 <Aschenputtel>”, 『어문학논총』 12, 국민대학교어문학연구소.
- 채영희(2008), “한·일 다문화교육 비교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최숙기(2007), “국어 교과서 다문화 제재 선정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 최운식 외(2002), 『설화·고소설교육론』, 민속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1-9, 고려원.
- James A. Banks(2009), 김용신·김형기 역,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시민교육론』), 교육과학사.
- S.Thompson(1946), 『The Folkta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稻田浩二・小澤俊夫(1977~1989), 『日本昔話通觀』 10, (京都)同朋舎.

<부 록>

1. 일본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米福 栗福 [こめぶき あわぶき] 日本 秋田縣角鹿郡

米福 [こめぶき] と栗福 [あわぶき] の姉妹があった。米福は先妻の子、栗福は後妻の子であった。

ある日、継母は二人を栗拾いにやった。その時 米福には破れ編袋 [こだし]、栗福にはよい編袋を渡して、これにいっぱい拾って来いと言いつけた。二人は山に行つて栗を拾い、栗福の方はじきにいっぱいになったが、米福の方は少しも溜まらなかった。そしたら栗福が言った。

「姉さん姉さん、お前の編袋 [こだし] に穴開いでら。山のお堂さ行ったら、まだ剥ぎの爺さまがいるから、こしらえてもらうべ」

二人は山のお堂に行つて、爺さまに袋の穴を繕 [つくろ] ってもらった。それで米福の袋もじきにいっぱいになったが、そのうちに日は暮れてつぶつと暗くなった。山道に迷っていると、向こうに明かりがぺかぺかと見えるので、行ってみたら、一軒の家があつて年寄った婆が一人いた。

二人が泊めて下さいと言うと、婆は「泊めるもええども、おら家 [は] には寝るところも着るものもねえよ」と言う。それでもたつて願うと、「そだら泊めてやるが、今に太郎と次郎が歸ってくつと喰われっから、おらの腰元さ入ってろ」と言う。

二人は疲れていたので、婆の腰元でぐっすり眠った。そのうちに太郎と次郎が歸つてきて言った。

「婆、婆。何だか人臭い」

「先刻 [さきた]、里の鳥こが飛んできて、それを取つて食つたが、そのあまりだべ」

それから、息子たちは「豆煎りをしてくろ」と婆に頼んだが、婆は「腰が痛くて豆も何も煎れない」と斷つて、寝ている子供たちを隠したまま動かなかった。それで息子たちは自分で豆を煎つて食べて寝た。

やがて夜明けになると、太郎と次郎は起き出して出かけて行つた。そしたら婆は米福と栗福に、「おらの頭の虱 [しらみ]、取つてくろ」と火箸を渡した。見ると、かなへび (トカゲ) みたいな大きな虱がうじゃうじゃいるので、栗福は恐ろしがつて取

らなかったが、米福は火箸を焼いて虱を挟み取って火にくべて殺した。婆は「ああ、ええ」と気持ちよさそうにしていたが、「汝〔んが〕には大儀させだ」と言って、米福には小さな宝箱をくれ、栗福には豆煎りをやって、太郎と次郎に見つかって捕まらないように早く歸れ、と家を出してくれた。

二人は氣をつけて行ったが、とうとう途中で太郎と次郎に見つけられて追いかけられた。もう少しで捕まりそうになったので、栗福が先ほどもらった豆煎りを

「後ろさ、大きだ山 出はれ！」

と言って投げると、山がこんもり出た。また追いつかれそうになると、大きな川を出して逃れた。

やっとのことで家かけこんで、お母さんお母さん、今來た、と言って栗を渡した。

「どれどれ、二人ともいっぱい拾ってきたな。そんだったら煮て食べー」

母は栗をゆでてくれたが、栗福にはよい栗をやり、米福には虫食い栗ばかりやった。それで栗福は、「母さん母さん、あっこにネズミいる」と言って、母がその方を向いている隙に米福によい栗をころころと轉がしてやった。

そのうちに、花輪の町に祭があった。そしたら継母は米福に、

「おらは栗福と祭見に行がはんで（行くので）、留守している。そして目かごで裾風呂に水汲んで、栗を十石搗いておけ」

と言いつけて、栗福を連れて祭見物に出かけて行った。米福は言われた通りにかごで水を汲もうとしたが、漏って少しも汲めないで困っていると、旅の和尚さまがきて、「それでは何ぼしたって水を汲めるものでない」と、衣の片袖を裂いて目かごを包んでくれた。今度はこんなに澤山の栗をどうして留守の間に搗きあげたらよいかと途方に暮れていると、雀が來て手伝ってくれたので、これも間もなく搗いてしまうことができた

そこへ隣の娘が「米福米福、祭見に行くべー」と誘いに來た。「お母さんが留守していると言ったから行かれない」と斷ったが、「何たて行くべー」と勧めるので行くことにした。着て行く着物がなかったので山の婆からもらった宝箱を思い出して開けると、綺麗な着物や足袋が入っていたからこれを着た。そうして髪は隣の娘に結ってもらって、祭見に出かけた。

棧敷に上がって祭を見ていると、栗福が見つけて、「お母さんお母さん、あそこに姉さんが來てら」と言ったが、母は米福には仕事をたっぷり言いつけてきたから、來るはずはないと言った。米福は下にいる栗福に饅頭の袋をぶんと投げてやった。

「饅頭くれたから、姉さんに違いないさ」

「んにゃんにゃ、米福はあんなに綺麗な着物は持たないから、違う人だべ」

米福は先に家に歸り、いつものぼろ服を着て粉糠だらけになって働いているところへ、母と栗福が歸ってきた。二人は祭の面白かった様子を話し、栗福は無邪氣に言った。

「祭に姉さんとそっくりな人が来ていて、饅頭の袋を投げてくれたけ、姉さんも行けば良がけやち」

そこへ、米福を嫁に欲しいという人が来た。継母は、米福の髪ときたら糞や蛇を流したようだし、着物も何も持たないから、栗福の方をもらってください、と言ったが、その人は「なんて米福が欲しい」と言う。米福が山の婆にもらった宝箱を出すと、それに嫁入り衣装がちゃんと入っていて、それを着て、米福は籠に乗せられてもらわれて行った。

栗福は羨ましがって、「おらも籠に乗って嫁に行きたい」と言ったが、誰ももらいにこないで、母が栗福を臼に乗せて、嫁入りの真似をして田のあぜを引っ張って行くと、ごろごろと轉げて二人とも田にぼちゃんに入った。そして羨ましいじゃ うらつぶと言いながら、つぶつぶとそのまま水に沈んで、うらつぶ（たにし）になってしまった。

2. 중국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酉陽雜俎』 - <葉限>

南人相傳，秦漢前有洞主吳氏，主人呼爲吳洞。娶兩妻，一妻卒。有女名葉限，少惠，善陶（一作鉤）金，父愛之。末歲父卒，爲後母所苦，常令樵險汲深。時嘗得一鱗，二寸余，赭鱗金目，遂潛養於盆水。日日長，易數器，大不能受，乃投於後池中。女所得餘食，輒沉以食之。女至池，魚必露首枕岸，他人至不復出。其母知之，每伺之，魚未嘗見也。因詐女曰：「爾無勞乎，吾爲爾新其襦。」乃易其弊衣。後令汲於他泉，計裏數百（一作裏）也。母徐衣其女衣，袖利刃行向池。呼魚，魚卽出首，因斤殺之，魚已長丈余。膳其肉，味倍常魚，藏其骨於郁棲之下。逾日，女至向池，不復見魚矣，乃哭於野。忽有人被發粗衣，自天而降，慰女曰：「爾無哭，爾母殺爾魚矣，骨在糞下。爾歸，可取魚骨藏於室，所須第祈之，當隨爾也。」女用其言，金璣衣食隨欲而具。及洞節，母往，令女守庭果。女伺母行遠，亦往，衣翠紡上衣，躡金履。母所生女認之，謂母曰：「此甚似姊也。」母亦疑之。女覺，遽反，遂遺一隻履，爲洞人所得。母歸，但見女抱庭樹眠，亦不之慮。其洞鄰海島，島中有國名陀汗，兵強，王數十島，水界數千裏。洞人遂貨其履於陀汗國，國主得之，命其左右履之，足小者履減一寸。乃令一國婦

人履之，竟無一稱者。其輕如毛，履石無聲。陀汗王意其洞人以非道得之，遂禁錮而拷掠之，竟不知所從來。乃以是履棄之於道旁，即遍歷人家捕之，若有女履者，捕之以告。陀汗王怪之，乃搜其室，得葉限，令履之而信。葉限因衣翠紡衣，躡履而進，色若天人也。始具事於王，載魚骨與葉限俱還國。其母及女即為飛石擊死，洞人哀之，埋於石坑，命曰懊女冢。洞人以為祿祀，求女必應。陀汗王至國，以葉限為上婦。一年，王貪求，祈於魚骨，寶玉無限。逾年，不復應。王乃葬魚骨於海岸，用珠百斛藏之，以金為際。至征卒叛時，將發以贍軍。一夕，為海潮所淪。成式舊家人李士元聽說。士元本邕州洞中人，多記得南中怪事。

3. 베트남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

Tấm Cám

Ngày xưa có một cô gái xinh đẹp, hiền hậu tên là Tấm. Vì mẹ mất sớm nên cha cô tục huyền với một người đàn bà khác. Rồi sau đó cha cô cũng qua đời nốt. Tấm đành phải ở với bà dì ghẻ. Bà này cũng có một cô con gái trạc bằng tuổi nàng tên là Cám.

Ngày ngày Tấm phải đảm đương hết mọi công việc nặng nhọc trong nhà, kể cả việc lừa trâu ra đồng ăn cỏ.

Trong lúc đó thì Cám được mẹ nuông chiều không phải làm gì, suốt ngày chỉ biết ăn uống rồi đi rong chơi.

Một hôm bà dì ghẻ gọi cả Tấm và Cám vào rồi bảo:

- Hôm nay hai đứa ra ao bắt cá bắt tép, đứa nào được nhiều thì sẽ được thưởng, còn đứa nào lười biếng sẽ bị ăn đòn đấy, nghe chưa?

Tấm nghe lời dì, ra ao mải mê bắt cá, không dám nghỉ ngơi, còn Cám thì vốn lười biếng, lại ý vào tình thương của mẹ, nên đuổi bướm hái hoa chán rồi lăn ra ngủ.

Đến chiều Tấm vui vẻ báo Cám:

- Chị bắt cá đầy giỏ rồi, mình về thôi Cám!

Cám nhìn vào cái giỏ trống không của mình, lòng thầm nghĩ:

- Chẳng có con nào, thế nào mẹ cũng mắng. Ta phải tìm cách cướp cá tép của Tấm mới được.

Nghĩ vậy, Cám liền nói với Tấm:

- Chị Tấm ơi! Đầu chị đầy bùn trông xấu lắm! Chị xuống gội đầu cho sạch

rồi về cũng không muộn!

Tắm nghe Cám nói thì tin lời ngay, bỏ giỏ xuống, lội ra chỗ nước trong gỏi đầu, không một máy may nghỉ ngơi.

Cám liền trút hết cá của Tắm vào giỏ của mình và vội vàng bỏ về trước.

Khi trở lên bờ, Tắm thấy giỏ cá của mình lẫn lóc bên cạnh bờ ao thì khóc suốt mướt vì nghĩ đến trận đòn hôm nay.

Đúng lúc đó thì ông Bụt hiện ra nói với Tắm:

- Con đừng khóc nữa! Hãy xem trong giỏ còn con cá nào không? Ông sẽ tìm cách giúp cho.

Tắm ngưng khóc tìm trong giỏ và đáp:

- Thừa ông, còn sót lại một con cá bống nhỏ ạ!

Ông tiên cười vuốt râu nói:

- Vậy cũng tốt! Con hãy đem con cá bống đó về thả xuống giếng đi. Ta sẽ dạy

cho con câu này để gọi nó lên ăn cơm. Sau này nó sẽ giúp con.

Tắm nghe lời ông Bụt, ngày ngày để dành cơm đem đến rồi gọi:

- Bống bống bang bang, lên ăn cơm vàng cơm bạc nhà ta. Chớ ăn cơm hầm cháo hoa nhà người.

Bà mẹ ghẻ và cô Cám nghĩ ngờ nên bà bảo Cám:

- Con rình xem nó làm gì mà ngày nào cũng thụt ngoài giếng hoài vậy?

Cám nghe lời mẹ, theo dõi Tắm và biết được sự việc liền nói với mẹ.

Qua hôm sau, bà mẹ sai Tắm lừa trâu đi vào núi ăn cỏ. Ở nhà, mẹ con Cám bắt chước Tắm gọi cá lên cho ăn rồi vớt lấy cá đem vào bếp làm thịt.

Chiều Tắm về gọi cá lên cho ăn, gọi mãi không thấy cá đâu, mà chỉ thấy một cục máu nổi lên, nàng sợ hãi bật khóc:

- Trời ơi! Cá bống mất rồi, hu hu...

Bụt lại hiện ra hỏi vì sao, Tắm đáp:

- Dạ thưa ông, người ta bắt mất bống của con rồi!

- Thôi, hãy về nhặt xương của nó bỏ vào lọ, đem chôn ở chân giường, sau này con sẽ cần đến nó!

Tắm nghe lời vào nhà tìm, nhưng nàng chẳng thấy mảnh xương nào cả. Chợt một con gà trống bay vào nói:

- Cục ta cục tác, cho ta nắm thóc, ta móc xương cho!

Tắm liền cho nó một nắm thóc, tức thì nó bơi trong đồng tro văng ra xương

cá. Nàng đem chôn đúng chỗ ông Bụt dạy.

Một thời gian sau, mọi người nô nức rủ nhau đi xem hội. Bà mẹ ngại Tấm đòi đi theo liền trộn chung đậu và gạo với nhau rồi bảo Tấm:

- Muốn đi dự hội thì hãy nhặt hết đậu trộn trong gạo chia ra làm hai phần rồi mới được đi nghe chưa?

Tấm cầm nia gạo trộn đậu mà rơi nước mắt nhìn theo hai mẹ con Cám. Nàng chỉ biết than thở:

- Ôi! Sao ta lại khổ thế này? Hu hu...

Nghe vậy, Bụt lại hiện ra:

- Ta biết con thích đi dự hội nên đến giúp đây! Con hãy đặt nia gạo ra sân ta sẽ cho bầy chim xuống nhặt cho.

Tấm liền làm theo lời ông Bụt và gọi:

- Chim sẻ ơi! mau xuống giúp ta!

Một đàn chim từ trời cao kéo xuống nhanh nhẹn nhặt đậu và gạo giúp nàng.

Trong chốc lát gạo và đậu đã được tách riêng ra hai bên gọng găng.

Ông Bụt lại nói với Tấm:

- Bây giờ con hãy đào lọ chôn xương cá lên! Con sẽ tìm được những thứ mà con mong ước!

Tấm vội làm theo lời của Bụt, đào chiếc lọ lên và nàng thấy có nhiều thứ quý giá ở bên trong. Nàng vô cùng ngạc nhiên và vui mừng bảo:

- Ô! Áo đẹp quá! lại có cả đôi hài nhưng dễ thương này nữa!

Tấm vừa cầm áo ra khỏi lọ, thì một con ngựa bé tí cũng chui ra. Nàng thốt lên:

- Ôi! Lại có cả ngựa! Nhưng sao nó bé xiu thế nhỉ? Làm sao cháu đi được?

Tấm vừa dứt lời thì con ngựa đã biến thành một con ngựa trắng, to lớn khỏe mạnh với các bộ yên cương rất đẹp.

Tấm liền tắm rửa, thay áo quần và đi hài vào. Tất cả mọi thứ đều vừa vặn y như là của nàng.

Sau đó Tấm lên ngựa, con thần mã lao đi vun vút, chẳng mấy chốc đã đến kinh đô. Nhưng khi phóng qua một vùng nước, Tấm đánh rơi một chiếc giày xuống nước mà không kịp nhặt.

Khi ngựa dừng lại ở đám hội, Tấm lấy khăn gói chiếc giày còn lại rồi chen vào trong đám người dự lễ.

Lúc ấy đoàn tùy tùng đưa nhà vua cũng vừa đến. Con voi vua ngự không chịu

đi qua vũng nước, nhà vua ngạc nhiên hỏi:

- Lạ nhỉ! Sao đến đây nó không chịu đi nữa? Các khanh tìm xem quanh đây có điều gì lạ không?

Quân lính sục sạo mọi ngõ ngách và tìm ra chiếc hài nhỏ dâng lên vua. Nhà vua nhìn chiếc hài nghĩ:

- Chủ nhân của chiếc hài nhỏ xíu này chắc chắn phải là một trang tuyệt sắc.

Lập tức vua hạ lệnh rao mời tất cả đám đàn bà con gái dự hội đến ướm thử, hễ ai đi vừa chiếc hài thì vua sẽ lấy làm vợ.

Lệnh vừa được truyền ra, các cô gái vô cùng nao nức. Ai cũng mong mình được thử hài trước. Dĩ nhiên mẹ con của Cám cũng chen chân vào có mặt để thử cùng các cô gái khác, nhưng chẳng có người nào mang vừa.

Đến khi Tấm đặt chân vào hài thì vừa vặn như in. Nàng mở khăn lấy luôn chiếc thứ hai đi vào. Hai chiếc giống nhau như đúc. Bọn lính hầu hò reo vui mừng.

Lập tức, vua sai đoàn thị nữ rước nàng vào cung để tấn phong làm Hoàng hậu. Tấm bước lên kiệu trước con mắt ngạc nhiên và hằn học của mẹ con Cám.

Tuy sống sung sướng trong hoàng cung, nhưng Tấm vẫn không quên ngày giỗ cha nên xin vua về thăm nhà.

Nhìn thấy gương mặt Tấm rạng ngời, quần áo võng lọng cao sang. Mẹ con Cám ganh tỵ vô cùng, bà ta nói với Cám:

- Mẹ sẽ tìm cách cho con thế vào ngôi hoàng hậu. Con hãy tin vào mẹ!

Bà giả vờ vui vẻ, ân cần nói với Tấm:

- Cha con lúc sinh thời rất thích ăn trầu, nhưng hôm nay mẹ mua mà chợ không có cau. Trước đây con quen trèo cau, nay con hãy trèo lên hái lấy một buồng để cúng cho cha con vui lòng.

Tấm rất thương cha nên đồng ý ngay, nàng thay áo quần leo lên cây cau. Đợi cho nàng trèo đến ngọn, bà dì ghẻ vội lấy rựa chặt gốc cây cau.

Tấm thấy cây rung chuyển quá thì hốt hoảng hỏi vọng xuống:

- Dì làm gì dưới gốc cây thế?

- Gốc cây lăm kiến, dì đuổi chúng đi ấy mà! Để cho nó khỏi lên đốt con.

Tấm chưa kịp hái lấy buồng cau thì cây đã đổ, ngã lộn cổ xuống ao chết ngay. Mụ dì ghẻ liền lấy áo quần của Tấm cho Cám mặc rồi đưa vào cung, nói dối với Vua là Tấm bị chết đuối, đưa em vào thế chị.

Vua nghe nói trong bụng không vui, song vì thương Tấm nên đành phải cho Cám vào cung.

Một hôm, Cám đang phơi áo nhà vua thì có con chim Vàng Anh bay đến hót:

- Phơi áo chồng tao, phơi lao, phơi sào. Chớ phơi hàng rào rách áo chồng tao.

Nhà vua đang nhớ Tấm, vừa đi đến thì nghe tiếng chim hót liền bảo:

- Vàng Anh Vàng Anh! Có phải vợ anh! Chui vào tay áo!

Lạ lùng thay, chim lập tức bay vào tay áo nhà vua. Từ đó nhà vua mê mãi chơi với chim, không đoái hoài gì đến Cám.

Cám tức lắm về nhà méc với mẹ, bà mẹ xúi Cám tìm bắt và giết chim, ném lông ra sau vườn. Chỗ ấy liền mọc lên một cây xoan, mỗi khi nhà vua đi đến, cây xoan cúi mình xuống xòe tàn che bóng cho vua. Cám căm tức liền sai quân đốn cây xoan ấy làm khung cửi rồi đốt đi, rắc tro ra ngoài thành. Chỗ ấy lại mọc lên một cây thị, đến mùa chỉ đậu có một quả.

Hôm nọ có bà lão bán hàng nước ở gần đó đi ngang qua, thấy quả thị thơm quá, liền giơ bị ra và nói lảm bảm:

- Thị ơi thị ơi, rụng vô bị bà, bà đem bà ngửi, chứ bà không ăn...

Bà lão vừa dứt lời thì quả thị rụng ngay xuống đúng vào bị. Bà nâng niu đem về nhà, cắt trong buồng, thỉnh thoảng lại vào ngửi ngửi và ngửi mùi thơm.

Một hôm bà lão đi bán về, ngạc nhiên khi nhìn thấy cảnh tượng trong nhà:

- Lạ nhỉ! Ai lại nấu cơm dọn sẵn cho mình thế này? Nhà cửa lại quét dọn ngăn nắp sạch sẽ nữa... Lạ quá!

Từ đó ngày nào về bà cũng thấy như vậy. Lòng vô cùng thắc mắc, bà nghĩ:

- Mình phải theo dõi xem ai lại giúp mình như thế! Chắc hẳn thế nào cũng sẽ tìm ra...

Hôm sau bà giả vờ đi bán rồi đảo trở về nhà, ngồi núp ở cửa. Bà thấy chỗ chiếc hũ đựng trái thị có một cô gái bé nhỏ chui ra, trong chớp mắt cô bé ấy hóa lớn thành ra cô Tấm. Cô đi dọn dẹp và nấu cơm. Bà lão không thể chờ hơn được nữa, tông cửa chạy vào ôm choàng lấy cô:

- Bà giữ được con rồi! Không được đi đâu nữa đấy!

Rồi bà vội tìm trái thị xé vụn ra, không cho Tấm ăn vào nữa:

- Con hãy cứ ở đây với ta, và hãy xem ta như mẹ của con vậy! Một mình mẹ ở đây buồn lắm, đừng từ chối mẹ nhé!

Từ đó hai mẹ con sống với nhau rất là đầm ấm. Ngày ngày Tấm lo việc nhà và tằm trầu cho bà đi bán.

Nhà vua vì buồn quá nên thường ra ngoài cung đi dạo. Một hôm khi đi ngang qua hàng nước của bà, nhà vua dừng lại nói với đoàn tùy tùng:

- Ta vào đây uống chén chè xanh cho mát đã!

Khi dâng nước xong, bà lão vội đem trầu dâng vua. Nhà vua ngạc nhiên nhìn miếng trầu tèm hình cánh phượng, giống hệt như Tấm ngày xưa, nên vội hỏi:

- Trầu này ai tèm mà khéo thế?

Bà lão liền thưa:

- Muôn tâu hoàng thượng, trầu này do con gái của già tèm.

- Bà mau gọi con gái ra đây cho ta gặp gặp! Chỉ có vợ ta mới tèm trầu khéo như thế này thôi...!

Bà lão liền quay về dẫn cô gái đến, nhà vua ngán ngờ kêu lên:

- Chính là nàng Tấm vợ ta đây mà! Có phải thế không? Sao lâu nay nàng bỏ ta mà đi, không một lần trở về?

Tấm cúi đầu không đáp. Nghe bà lão kể lại đầu đuôi câu chuyện, nhà vua vui mừng ôm Tấm và đưa nàng trở về cung.

Thấy Tấm trở về xinh đẹp hơn xưa, Cám sợ hãi vội lân la làm hòa với Tấm. Cô ta hỏi:

- Chị Tấm ơi! Sao da chị trắng thế? Chị có cách gì chỉ cho em với!

Tấm mỉm cười độ lượng, nàng nói giỡn với Cám:

- À nhờ chị tắm bằng nước sôi đấy!

Ngờ đâu Cám tưởng thật liền đun một chảo nước sôi để tắm. Thế là hết đời của một kẻ gian manh.

Ở trong cung, Cám bị rất nhiều người oán ghét vì thói kênh kiệu của cô ta, nên họ bàn nhau đem xác Cám làm mắm rồi bỏ vào chính gửi về biếu bà mẹ độc ác, bảo rằng đây là quà của Cám gửi tặng. Bà mẹ tưởng thật, ngày nào cũng đem mắm ra ăn rồi khen:

- Thiệt là ngon, con mình làm mắm khéo quá!

Một con quạ nghe mùi người chết từ đâu bay đến nóc nhà kêu rằng:

- Ngon ngon ngon ngon, mẹ ăn thịt con, có còn xin miếng!

Mụ ta giận dữ, đuổi quạ đi, nhưng khi nhìn vào chính thấy đầu con mình thì lăn đùng ra chết, thật đáng đời một kẻ gian tham và ác độc...